東亞日報

三日夕刊 本紙八面

發行兼編輯人 宋鎭禹 印刷人 [illegible]
京城府光化門通一三九番地
發行所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電話 光化門 代表番號 一九〇〇
振替 京城八一七三〇番 / 大阪 五五三七八

新聞價 一個月 一圓 / 三個月 二圓九十錢 / 半年 五圓七十錢 / 一年 十一圓 (先金) 廣告料 [illegible]

利權問題
—民衆利益擁護의 見地에서—

一

政治와 利權, 政黨과 利權! —이 問題는 現代의 議會政治의 一大弊端 또는 弊害로서 自他가 共認하는 바다. 昔日 封建專制의 時代에서는 一切의 權勢와 利益이 支配者와 그의 달리 잇엇스며 民衆의 利害란 深論할 餘地가 업섯슬것이나 民主主義의 巨波가 世界를 一掃하야 所謂 立憲 또는 共和의 世紀를 産生하야 民衆의 意思를 代表하는 所謂 議會政治가 世界의 大勢가 된 今日에 依然히 一部의 勢力을가진 一群이 權勢를 恣行하고 利益을 獨占한다 하면 이야말로 矛盾擁着의 甚한 者라 할것이로되 事實에 잇서서는 이러한 矛盾擁着이 社會公然한 秘密로서 行하고잇는 것이다.

때때로 白日下에 暴露되는 疑獄의 醜惡가 이 複雜한 利權關係에 關聯되지 안는것이 업나니 最近 世人의 耳目을 聳動하는 諸事件等을 보드래도 무슨 鐵道이니 무슨 港灣이니 무슨 移轉地이니 무슨 京城電車이니 하야 利權과 關係 안된것이 업다. 米國하딍大統領時代의 油田大疑獄가 큰것을 보면 利權의 害毒은 東西가 그 揆를 가티함을 알수잇다.

二

이가려 白日下에 그 醜狀이 暴露가 되는 反面에는 晴晴得에 授受되는것 또는 法律의 그물에 걸리지안흔 程度에서 되는 大小의 利權도 만흘것이니 그로因하야 不當의 利得을 獲得하는 反面에 잇서서는 一般人民의 利益이 侵害되는것이 또한 적지아니한것을 본다. 그뿐아니라 비록 消極的 行作의 일이아니라하드래도 利權運動을 가진 當局者의 偏頗된 判斷으로하야 一般人民 또는 當然히 利權을 바더야할 人士의 利益이 無視되고 엉뚱한 個人이나 一群에게 利權이 다떠나는일도 업지아니하다.

朝鮮에잇서서 볼지라도 利權으로서 볼만한것이 大宗은 鑛山, 漁場, 林野 等의 許可, 小賣權, 官許를 要하는 [illegible] 利權으로부터 小로는 官許를 要하는 營業狀에 이르기 外지 人民의 利害休戚에 關係되는것이 枚擧키 不能하다.

더구나 우리가 恒常듯는바는 이때안 利權을 處理함에잇서서 當局者는 民族的으로 差別을 加한다는 非難이 잇다. 或은 元作民의 利害를 無視한다는 非難도 듯는다. 그뿐아니라 無識과 缺乏이 원수가되어 언제차즐지도 모르고 利權도 남에게 빼앗기는 實狀도잇다. 果然 그러한가. 이것이 朝鮮民衆의 利害得失에 恒常念頭에 두는우리로서는 한번 討究해보고 實地로 알아볼 必要가 잇는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紙面을 割하야 利權探査의 조고만 試驗하는所以다.

三

생각컨대 政黨政治의 弊害의 利權問題는 政黨政治의 根本的 革新이 아니고서는 解決할수업는것이다. 現在의 政黨政治가 多大한 政黨費, 選擧費를 要하게되고 그 費用은 純全히 黨員의 自由出捐으로되어잇스니 正當한 方法으로서는 그 收入支出을 마추기가 不能하매 不得不 資本閥에게 寄捐을 求하게되고 그代價로 政權을 利用하야 利權을 讓與하게 되고 [illegible] 것이다. 今日의 政治가 資本의 支配하는바은 今日의 政治가 資本閥의 走狗가 되다는것을 우리는 알거니와 [illegible] 利權問題의 公正한 解決을 바랄수는 업다. 可能한限度外지 政黨政治下에서 求하는 것은 暴露하고 或은 抗爭하야 改善을 求하는것이 우리가 行하는 外에 여기 잇는것이다. 우리는 當面의 侵害를 半面觀 [illegible] 利益을 擁護하며 利益을 擁護할것이 아닌가.

司法權을 確立하야 法治國家를 完成
國府에서 全國에 通令
「人民의 모든自由를 保障하라」

【南京特電】中央政治會議에서 可決된 人民自由保障法案에 關하야 近近討議가 終了되어 國民政府는 此를 全國에 通令하야 實行케하는 同時에 行政法院을 獨立케하고 司法權을 確立하야 近代的 法治國家의 形態를 完成코저하는데 右法案內容은 如左하다

一, 中央黨部로부터 各下級黨部及 黨員에 通令하야 法律에 依據치 아니하고 人民自由를 侵害하는 行動을 一切嚴禁
二, 國民政府의 名義로써 全國行政及 司法機關에 通令하야 警察法及 刑事訴訟手續에 依치아니하고 人民을 逮捕하거나 行政法規에 依치 아니하고 人民財産을 侵害함을 嚴禁
三, 政府로부터 全國人民團體에 通令하야 法律以外의 自由侵害의 行動을 嚴禁
四, 人民의 身體, 財産, 言論, 出版, 集會, 結社等의 自由를 確保키 爲하야 結社集會에 關한 法律制定을 督促
五, 軍事機關의 戒嚴時期外에 人民을 逮捕하거나 財産의 自由를 侵害하는 非法行動을 嚴禁

民國의 新稅率【一】
日本과의 重要關係品目

本年一月一日부터 實施되는 中國의 新輸入稅率은 지난 十二月二十九日 國民政府에서 發表하얏는바 다음에 揭載하는것은 特히 日本과 關係의 기픈 品目의 新稅率이다

◇生綿布

種目 新稅率

一, 生金巾(天竺木, 廣木, 金巾等)及金粗布(幅四十吋, 長四十一碼를 超치 안는것)
(가)重量 七封度를 超치 안는것 〇,五一
(나)重量 七封度 乃至 九封度의것 〇,七四
(다)重量 九封度 乃至 十一封度의것 五,九八

二, 生金巾及生粗布(幅四十吋 長四十一碼를 超치안는것으로서 一平方吋內의 絲數 百十本을 超하는것)
(가)重量 十一封度 乃至 十二封度의것 一,二〇
(나)重量 十二封度 乃至 十五封度의것 一,二〇
(다)重量 十五封度以上의것 一,五〇

三, 生金巾及生粗布(幅四十吋 長四十一碼를 超치안는것으로서 一平方吋內의 絲數 百十本을 超치 안는것)
(가)重量 十一封度 乃至 十五封度의것 [illegible]
(나)重量 十五封度以上의것 [illegible]

四, 生雲齋布及生粗布(三枚又는四枚綾織을 用한것에 限함)(幅三十吋, 長三十一碼를 超치안는것) 〇,八三

五, 生雲齋布及生粗布(三枚又는四枚綾織을 用한것에 限함)(幅三十一吋, 長四十一碼를 超치 안는것)
(가)重量 十一封度四分의三을 超치 안는것 一,一〇
(나)重量 十一封度四分의三을 超한것 〇,九一

六, 生天竺布(幅二十四吋, 長十五碼를 超치안는것)
(가)重量 七封度를 超치 안는것 〇,五一
(나)重量 七封度를 超한것 〇,七一

七, 生大笠布(幅二十四吋以上 三十七吋以下의것으로서 長二十五碼를 超치 안는것) 〇,八五

八, 生綿布(幅二十四吋를 超치 안는것) [illegible]

九, 綿以外의 [illegible] 一平方吋內의 絲數 百十五本을 超치 안는것 但 綾織의것을 含함 九,〇〇

◇晒白又는染色綿布

一〇, 無地의金巾及 晒粗布
(가)幅四十一吋를 超치 안는것 一,二〇
(나)幅四十一吋를 超한것 從價 一割

(此項續稿)

英領緬甸에 革命亂
官軍과 激戰多數負傷
將校十六名은 遂被殺

【蘭貢一日發電通】英領緬甸에 革命亂이 勃發하야 一日「사ー루와디」平原에서 政府軍과 對戰하야 革命軍은 百五十名의 負傷者를 出하얏고 政府軍의 損害는 極히 輕微하야 革命軍의 本據를 衝火하고 將校十六名을 射殺하얏다 그中에는「아모레스트」將軍도 包含되어잇다

獨立宣言記念日
印度各地에서 暴動
民, 警間負傷百七十

【孟買一日發電通】一日은 全印度國民議會의 印度獨立宣言記念日에 當함으로 各地에 騷動이 起하야 民衆百五十名과 警官二十一名의 負傷者를 出하얏다

印度代表間에도 紛爭
圓卓會議前途悲觀
特別委員會開催, 難局打開劃策
狼狽한 맥도날드氏

【倫敦一日發聯合】印度問題에 關한 圓卓會議는 去十一月十二日開會된以來 이미 五十餘日을 經過하고 一月中旬에는 [illegible] 中央政府의 [illegible] 回回敎徒와 印度敎徒와의 紛爭으로 會議의 進行은 [illegible] 一日에 至하야 兩敎徒代表共은 最下層階級의 制度를 廢하고 此等被壓迫階級은 그로부터 分離할것을 要求하야 [illegible] 「맥」首相은 狼狽하야 特別委員會를 開催하야 少數派小委員會를 [illegible] 難局打開의 途를 講究하기로 되엇고 又該問題外의 [illegible] 印度의 最下層階級을 代表하는 「암베드카」氏는 將來의 憲法에 [illegible] 會議의 前途는 一層 悲觀的으로 되엇다

웰스坑夫十六萬
一日부터 罷業開始
(解決與否는 二日協定會에잇다)
坑夫와의妥協遂破裂

【倫敦一日發聯合】炭坑側과의 妥協이 成立되지 못한 「사우스·웰스」炭坑夫十六萬은 畢竟 一日부터 一齊히 罷業을 開始하얏다 그러나 此罷業은 적어도 今後 二日間은 繼續될것이 確實한바 目下狀態로 보아 唯一한 希望은 來二日 解決案을 討議할 協定委員會를 開催하기에 坑主, 坑夫雙方이 同意한것으로 그結果如何에 在하다 [illegible] 延時間制度의 適用方法에 關하야 三十一日 行한 炭坑主側과의 交涉이 失敗에 歸하얏슴으로 十萬의 坑夫는 [illegible] 拒絶하게되엇든 [illegible] 交涉을 講究하리라 觀測된다

十萬炭坑夫 入坑을 拒絶

【英카ー디후一日發電通】英吉利炭坑法中의 二週間九十時間으로되어 [illegible]

丕元帥恢復絶望

【巴里二日發電通】「조푸르」元帥는 一日午後부터 昏睡狀態를 繼續한것이 二日朝七時의容態報告로 發表되엇다 元帥의 生命은 全然絶望

愛蘭自由國
倫敦條約批准
三十一日英外務省에寄託
日英米間에는效力完全發生

【倫敦一日發聯合】愛蘭自由國의 批准書寄託과 同時에 千九百三十年의倫敦條約은 [illegible] 英國外務省에 寄託되엇슴으로 倫敦條約은 日, 英, 米三國에 關하야 完全히 效力을 發生하기로 되엇슴으로 英國政府는 [illegible] 效力發生을 中外에 宣布하기로되엇다

【華盛頓三十一日發聯合】[illegible]

英國歲入
大不足
二億八千萬磅

【倫敦一日發聯合】四月一日부터 十二月三十一日에至하는 九個月間의 英國大藏省의 歲入不足額은 實로 二億八千萬磅의 巨額에 [illegible] 前年同期의 不足額 一億六千九百萬磅에 比하야 [illegible]

橫說竪說

□ 新年들어서 暴落인데 [illegible] □ [illegible] □ 新年 劈頭에 英國서 炭坑夫 [illegible] 不吉。

民族主義「結實期」
一九三一年의民國【四】
仁王學人

吾人으로 하야금 말하게하면 到底히 現在의 國民政府로서는 國民大會의 召集은 모름지기 實現의 可能性이 업는것이다. 적어도 二十年以後가 아니면 地主를 後盾으로하고 新興資本家를 中央으로한 國民政府가 實現될것이다. 그 二十年間에 잇서서 强大한 統率力과 充實한 紀律을 가지고 純粹한 以黨治國을 實現하면 民衆의 支持를 엇기 不可能한것이 아니다. 오늘今日의 國民政府가 大資本閥을 그 背景으로하고 其他 封建的 餘殘勢力과의 妥協으로 成立된 [illegible] 이 純粹한 黨의 建設問題의 더욱 重大한 研究를 要하게되엇다.

[illegible]

八、財政問題其他

[illegible]

◇載寧◇
載寧邑 尹敎喆 / 載寧邑 張斗和 / 載寧邑 日新組合 / 載寧邑 載寧郵便局 職員一同 / 載寧邑 中華料理 悅賓園 / 載寧邑 中華料理 福生園 / 載寧邑 中華料理朝鮮料理 大同館 / 載寧邑 海林商會 / 載寧邑 協同商會 / 載寧邑 張載坤 / 載寧邑 司法代書人 玉順善 / 載寧邑 利善式綿打機製作所 / 載寧邑 朝鮮鐵道株式會社 載寧取扱所 / 載寧邑 載寧鄕約會 / 載寧邑 天生堂洋服店 主 張孝緖 / 載寧邑 載寧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 載寧邑 載寧藝妓組合 / 載寧邑 穀物貿易商 / 載寧邑 西鮮電氣株式會社 / 載寧邑 株式會社 載寧材木商會 / 載寧邑 載寧運輸倉庫株式會社 / 載寧邑 長壽醫院

謹賀新年

載寧邑 中華料理 長壽園 / 載寧邑 詩山醫院 / 載寧邑 中華料理 修養園 / 載寧邑 株式會社 載寧菊花釀酒場 / 載寧邑 載寧商會 / 載寧邑 中央齒科醫院 / 載寧邑 司法代書人 盧允植 / 載寧邑 新院面長 金基秀 / 載寧邑 安永水利組合 / 載寧邑 載信水利組合 / 載寧邑 載寧商事株式會社 / 載寧邑 金成合名貿易社 / 載寧邑 株式會社 載寧殖産組合

載寧郡 北栗面事務所 職員一同 / 載寧郡 三江面長 康奎夏 / 載寧郡 長壽面長 林道卿 / 載寧郡 職員一同 / 載寧邑 載寧明新普通學校 / 載寧邑 主 金昇祚 / 載寧邑 文昌商店 主 金致俊 / 載寧邑 柳屋旅館 / 載寧郡 西湖面事務所 職員一同

◇橫濱◇
川崎市 金斗洪 / 川崎市 李時和 / 社會民衆黨執行委員 尹炳城 / 橫濱市 沈相駿 / 鄭純鎔 / 東亞日報 橫濱販賣所 尹東駿 / 橫濱市 大陸亭 主 金在鶴

川崎市 鷄林亭 主 金元 / 橫濱市 李周翊 / 橫濱市 朝日軒 主 金龍三 / 川崎市 朴用瓚 / 川崎市 金顯商 / 橫濱市 笠井印刷所 / 橫濱市 製造所 李元杰 / 橫濱市 金在訓 / 世界軒 主 金在善 / 日本製作會社 救濟會幹部 金炳洙 / 川崎市 李鐘國 / 橫濱市 宋秉先 / 橫濱市 李秉根 / 橫濱市 丁斗祥 / 釜山 朝鮮汽船株式會社 社長 廣瀨博 / 株式會社 林兼商店 釜山支店 支店長 野口耕二 / 朝鮮釜山 岩橋一郞

ClibPDF - www.fastio.com

◇金剛山의年頭雪景‖【海金剛의一部叢石亭附近】‖

敦化縣中國官憲 六十同胞又檢擧
◇銃殺事件以後또다시怪變
恐怖에싸인移住農民

【길림】 요사이 중국관헌은 또다시활동을개시하야 길돈선돈화현(吉敦線敦化縣)에 조선동포六十여명을 다시구금하얏다는바 그사실내용을들은바에 의하면 지난 八월一일의폭동당시에 중국군대측에서 장총(長銃)十여자루를 공산당에게 빼앗기엇슴으로 지금까지 조선인을 감시하야오든바 일전돈화현부근(영이룡근마상)에서 조선인공산당十여명과 중국경관과 교전되어 공산당원二명은 그곳에서 총살되고 그남은사람은 모다자취를 감추고말앗는데 이사실이 한번발생한후로 중국경관의 무리한취체는 아니미치는곳이업더니 필경주민六十여명을 지금구금하얏스며 아직도 계속검거하는중이라하다 더욱 그곳은길림성정부주석장작상(吉林省政府主席張作相)씨의개인소유의 토지가 만코 조선인도 만히살든중 또다시 검거서풍을 맛나게되어 공포에싸여잇는중이라한다

對岸移住民 歸國者激增
【經濟壓迫의風說돌아】
◇驚弓之鳥의同胞

【강계】 만주에서는 공산군의 …자에게는 역시 三원의 세금활동으로 그들을 토벌한다는 소문이 돌게되자 명목암에 양가티 순한 이주조선동포들은 더한층 공포를 민의 애매한 희생이 잇다 하야 느저 속속 귀국중이라는바 현련일 보도되는바어니와 근일에 대는 …이요 봄을 숙길수 와서는 공산군이 남하할 긔세가 업스니 송낫지마는 명년봄납 물 보입으로 압록강을 건너 만판다면 용서업시 각촌을습격 안치방이 즙안현(輯安縣)에서도 하겟다는 공산군으로부터 저 매우 불안중에 잇다는바 최근 분이 가간 밤포으로 놀란가 중국측에서는 철저적으로 조선인을 구축하는데는 압박으로만 국할 로비엇는데로 매개귀국하 할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괴롭히라하며 현재에도 류하현(柳河縣)근방에서도 五六호七八호 로용을 주는것이 나 호리라하야 새해부터는 조선사람에게 한하야 매호에 남자 十四세 이상의 사람에게 一년에 六원의 세금을 청하고 춘추 이긔로 맛는다는 풍설도 잇스며 또는 새해부터 중국인간에서 조선인 소작인을 사용하는 중국인지주에게 역시 매호에 二원의 세금을 바드리라 하며 시가 도시 [illegible] 지세를 주 [illegible]

靈武署活動 靑年一名檢擧

【동원】 함남령무경찰서(咸南靈武署)에서는 격문(檄文)사건으로 활주하얏다는 수모자의 거처를 찻노라고 령 [illegible]

長生實話
高齡者生活記

◇……◇ 녀성으로 九十세이상의 장수자는 상당히만흐되 남자로서 九十장수는 매우드무외다 하자면 그원인을무러보면아미 남자는 정신으로 육체로 청려 람비의 탓이라고 하지안흘는지오

① 白髮親前白髮兒 五十年間을獨身
◇長生爲해昨暮부터斷酒◇
麻浦洞 安英植氏【九〇】

◇……◇ 이 조흔 방중으로 마포동(麻浦洞)一백二十번지에 안영식(安英植)이라는 금년九十세되는 고령자가잇습니다 이로인은 벌서四五十년전에(어느해인지 분명히 긔억치못한답니다) 안해를사별하고 이래호라비로지나온다하나 이것이 장수의 큰도움인지알수업지오

◇……◇ 이로인의 九十년사를 드르면 이러하외다 개국(開國)四백九十一년임인(壬寅)八월 二十八일에 서울 금천교(錦川橋)다리부근에서 출생되어 글방에도다니고 집안일도 도웁다가 十七세때에 장가를 들엇답니다 장가든지八년만에 가 맛아들을나허 지금까지 기른는데 그분의 나히가六十五세이라하니백발친전백발아(白髮親前白髮兒)라 장수하는집안이아닙니까 그뒤를이어아들하나 딸둘을 나헛는데 모두아직까지 건전하야 장가들고시집가서 아들딸나코 다잘산다니복잇는가정이아닙니까만은 일이로이에 익숙이 배우사금벌치 안혓든지 또는재취를하얏드라면모르긴하겟거니와 지금이상의자녀가 만혓슬것입니다

◇……◇ 지금이집의 가족상태를 보면 이러하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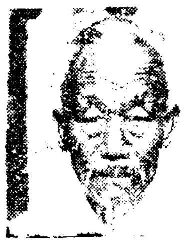
▲戶主安英植一子二人、子婦二人、女二人、孫子六人、孫婦五人、孫女三人、曾孫子二人、曾孫女一人

이밧게 안영식씨의 딸두분의 소생자녀에게 五人、차녀에게 四人이 잇스며 또 그소생은몃명이나 되는가 모른다니 이 만흔자손을 한집에 모흐면 몃十명이나 될가함은 안영식로인도 이저버리기를 잘하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거타 복잡한 수효는 이로인뿐이 아니라 여가산순새나 하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계산하거 어려울것이다

◇……◇ 이가더만흔 자손이잇스되이로인과 한집에사는식구는 맛아들의 식구뿐이되다 맛아들과 그안해 그아들두내외또그아들두넘과 딸하나 증손여지합하야 十명인이외다 그러나 명식구라도 상당한 가족이아님니다 만일 새활상태가 좋더유족하야더라면 칭적이 하인 시켜 합하야 이것만으로도 수十명이되엇슬것이외다

◇……◇ 장수법을 무럿더니 역시 분명한 가르침이업섯스나 병은한번도 알치아햇디니무병이장수의 비결인가보외다 음식은무엇은 조하하십니까하얏더니 아츰저녁엔 밥을먹되 고기 반찬이나 생선이잇서야 식욕이나하지답니다 이밧게 과실을 대단히조하며 약주도 즐기어 하루에 곱배기잔으로 三四배는 먹어왓고 기운이낫섯스나 지난달부터는 몸을 몹보아 단연금주하얏다니 몹도록 몸을 더욱안길생각이 간절하나는가봅니다

◇……◇ 사시는데 무엇이 락입니까? 하는 물음에 대하야는 덤덤히 먹고 박겐엄지오 그러나 간혹먹고 수업지오하는것이 대답이엇습니다 「로지지게지재득(老之至戒之在得)」이라고 한고인의 구가 새삼스럽게 생각됩니다 나히는 백세를바라보되 아직 눈도밝고 귀도 총명하며 나모 활반은 사엇스나원형은 그대로 남엇습니다 이로인의 수가 아프로 엄마나길는지는 모르것스되 몸에해롭다고 그조화하든 약주를단키시지하얏다니 아직도생의 욕망이 대단하며 큰모양입니다 안영식씨와그자남안 [illegible] 근씨



洋靴職工의 作業部開業
금二일부터 영업을시작
世昌爭議의副産物

세창양화점(世昌洋靴店)에서 여러해를 근무하다가 해고(解雇)를당한 직공二十여명이 집단하야 작업부(作業部)를개설하[illegible]한은긔보한바어니와 동직공들은 시내공평동(公平洞)一백十四번지에서 양화직공 작업부(洋靴職工作業部)라는간판을 새로 걸고금二일부터 영업을 개설하얏다는데 그가격과 품질은각철하고도 전실한것을 위주로하야 「깃도」단화(短靴)九원으로부터十一원 「깃도」편상화(編上靴)十一원으로부터 十二원、복수단화(短靴) 七원五十전으로부터 八원、복수편상화(編上靴)八원으로부터 九원、학생 편상화 六원으로부터 六원五十전 가량이라한다

宇宙의最大秘密 生命創造實現!
죽은細胞와無生物을살려내
科學者의實驗成功

【뉴욕전보】 인공적으로생세포(生細胞)를 맨들어 내이다는것이 필경 성공하얏다 하야 비상한『센세ㅣ슌』을 이르킨 사실이 잇다 미국(米國)『구리ㅣ프ㅣ란드』의 『죠지그라일』박사는 작년十二월二十九일 미국 일류의 과학자(科學者)수백명이 모인곳에서 자긔의 비밀을 표명하고 발표한바에 즉 석과학자들은 비상히 경탄하고 현미경(顯微鏡)으로 실험을하야 보앗다 동박사의 실험은 먼저 동물(動物)세포를 취하야 지방류사담백질(脂肪類似蛋白質) 기타 모든성분으로 분류하야 생명의 모든 현적을 안코 약一개월동안 가튼 상태로두고 전해물(電解物)중에 이것을 혼입(混入)하면 동물질들은 一단위물(一單位物)로 형성되어 중심핵(中心核)과 모발상(毛髮狀)의 방사를 가진 처형과 가튼 세포를정(呈)하고 생물과가티 성장하야 어떠한 때에는 싹(芽)이 나고 어떠한 때에는 왕왕이『아미바ㅣ』와가티분렬하야 그수효를증가하얏스며 또한편으로『렉시코』의『헤렐라』박사는 무긔물(無機物)을 적합하게 배합(配合)하야 생명을 창조하는데에 성공하얏다고 보고하얏다 동박사는 적극적으로 생(生)세포라고는 하지아니하나 외각(外殼)을갓고 식물(食物)을취하야 성장하고 번식하는것 임으로죽은 물건은아니라고 언명하얏다 무엇으로보든지생물과 무생물(無生物)의 경계가 제거(除去)되엇다고하는 획긔적(劃期的) 발견이오 이류과거백여년간 생명의 창조라고하는 우주(宇宙)의 가장큰수수꺽기를 풀기위한 노력의결과가 여기 실현적으로 제일보를 내어드딘것이라하겟다

六十八女工 盟罷를斷行
【釜山福島製網工場】
新正劈頭의첫罷業

【부산전보】 부산목도(釜山牧島)에 잇는 福島제망공장(製網工場)의직공 六十八명은 금四일에 돌연 동맹파업을단행하얏다는데 그리유는 고주측에서 직공들에대한 임금(賃金)을 돌연히 四할이나 내리어 그를다시 종전대로 올리기를 요구하얏스나 고주측에서는 일절불응(不應)하야 홍향으로 마츰내 그가티 파업을 한것이라는바 이는 신년벽두에 처음되는「스트라이크」으로그진전은 자못 주목된다고한다

시함흥고등보통학교(咸興高普) 격문사건으로 작년一월경에 피신하야 고비 원주하얏다든려무 강탈(康脫一名=金鳳)씨라는데 그이튼날 원은아츰 퇴차에 홍원서로호송하얏다고한다

龍井市日을 陽曆으로變更

【간도】 룡정상부국장(龍井商埠局長)송봉년(宋鵬年)씨는 종래시장날를 음력으로하든 것은 대다히 불편함으로 이를 양력으로 변경하야 명년一월一일부터 실시하라고 지난 二十六일에 일반시민에게 공포하얏다한다

今朝、平洞에火災
【損害額二千七百餘圓】
◇火原은煖爐에서

금三일 오전七시경에 시내평동 二七번지홍강구년(洪江久年)의 집에서 불이일어나 삽시간에 이층양옥한채를 전소하고 진화하얏는데 원인은 그집이층「스터브」에서 실화한것이라하며 손해는 약二천七百원 가량이라는바 인축에는 사상이업스며 이와가티 전소한것은 소방대에서 평동을 계동(桂洞)으로 잘못알고 재현장에 늣게도착한 때문이라한다

鐵箒繼續發刊

시내청진동(淸進洞) [illegible]번지에 잇는 철필사(鐵筆社)에서 발행하는 월간잡지 신문평론철필(新聞評論鐵筆)은 그동안 휴간케되엇든바 혁신하야 가지고 내용과 진용을 계속출간케되어 목하제四호를 인쇄중으로 불원간 발간케 될터인데 정가는 二十전식이며 각지방에 지분사(支分社)도 모집한다한다

雄基에大火 損害二萬餘圓
상점四호를 전소하얏다
發火原因은調査中

【웅긔】 지난二十九일오후十一시三十분경웅긔본정통一백八十八번지좌등(佐藤)과성복상점에서 불이나서 그이웃집권석우(權錫祐)씨의 경영이부동자 전차점(淸興自轉車店)과 강경섭씨(姜慶燮)의경영하는구미양복점(歐米洋服店)외 하겸한(河謙漢)상점까지 四호가전소되엇는데 마침소방조원의 활동으로 다행히다수의 연소를면하얏스나 손해가 二만여원이라고 관측되는데 화재가 근九천원이라하며 화인에 대하야 조사중이나 방화된전긔라는 등상첨만은 화재보험에 드러스나 그외조선사람경영의 게상점에서는 화재보험에도 들지아니하얏다 하다

日曆

陽 一月四日(日曜日)
陰 十一月(小)十六日
日 入 前後
月 入 後前
滿潮(仁川) 前後

天候

京城 昨日最低 零下○、[illegible] 今日正午 零下○、四
四日 曇後晴

日曜講話

▲貞洞敎會(第一禮拜堂) 午前十一時 成功의基礎 奇怡富氏
午後七時 團結의힘 金永燮氏
▲朝鮮中央基督敎靑年會 午後三時 新年에는 吳兢英氏
▲中央敎會(壯洞內) 午前十一時 예수는우리生活의中心 金昌俊氏
午後七時 唯一한일터 元漢均氏
▲三淸洞敎會 午前十一時 新年의決心 金明性氏
午後七時 升心은無所不能 金明性氏
▲慶皇寺(新松洞) 午前十一時 眞理의大國 金泰洽氏
▲向上會館(天然洞) 午後二時 새해마지 李鍾光氏

라디오

【四日日曜】 午後零時半氣象槪況▲零時四十分、各地天氣槪況▲一時半西道雜歌、[illegible] 歌曲、短歌本曲▲[illegible]▲二時半 [illegible]▲六時 [illegible]▲六時半 [illegible]▲七時半 [illegible]▲七時二十五分 [illegible]▲九時半氣象槪況時報

運動競技

高專氷上競技大會 大豫호케에一勝

【盛岡三日發電】帝大氷上競技聯盟主催、第一回全國 高等學校氷上競技選手權大會는 二日午後盛岡市外 高松野池『링』에서擧行、參加校는二高、松本高校、北大豫科、京城大豫、旅大豫科、學習院의六校로 午後 一時半入場式의 뒤를 이어『피규어스케ー링』으로 開始、午後二時부터의 氷上호케ー豫選은 松本高校와 京城大豫科가 勝하야 三日決勝戰에들어갓다

松本商校2ー0第二高校
城大豫科1ー0北大豫科

日本中等蹴球

大毎主催、第十三回中等學校蹴球大會는 今二日부터阪神甲子園에서擧行、아式蹴球의前戰結果는다음과갓다

【二日=第一回戰】
京都師範ー富山師範
【四日=第二回戰】
愛知一師ー御影師範
熊本二師ー靑山師範
堺 中學ー函館師範
廣島一中ー一回戰勝者
【五日=準決勝戰】
【六日=優勝戰】

信城18關大10 日本遠征中의 信城軍비팀은去三十日 關西大學戰에 十八對十으로 第一戰에勝捷하얏다

英佛伊三國飛行競技 【론돈八日發電】

英飛行俱樂部는今年度『슈나이다ー컵』爭奪飛行에 佛蘭西水上機三機의參加通知를바덧다、이것으로伊太利三機、英吉利四機를合하야十機가스피ー드競爭의白熱戰을行할터이다今年은時速四百哩의新記錄이생길것으로期待된다그러고競技場은아마昨年과가티『소렌트』가되리라한다

海外短信

◇獨逸의올림픽費 一九三二年로스엔젤스에열릴 世界올림픽參加를爲하야 獨逸設協에서는 四十九萬마크(日貨廿四萬五千圓)의豫算을 세웟다

◇펠츠아出場停止 獨逸中距離의 名走者『펠츠아』는 昨年東洋來征後 그間行爲에疑惑잇다고 國際委員으로부터抗議가잇서 遂히出場停止를命하얏다

謹賀新年

失印廣告 弊店印章(木刻長圓形)을去十二月三十日午前十二時頃에金泉郵便局附近에서遺失하고更刻使用하오니以此照亮하시옵 金泉舊町 德豊恒

◇德川◇
平南德川 德川產業組合
德川公立普通學校 校長 田爪榮被
德川邑內 司法代書人 李秉完
德川郵便所長 小野崎通雄
德一釀酒組合 全用泳 全權南
德川警察署長 杉浦淺吉
德川邑內 德興醫院 徐崚鎬 徐台鎬
平安協同組合
德川郡守 李啓漢
德川邑內 少年少女 主日學校
德川金融組合 理事 二位成治
平南德川郡德川面邑北里 司法代書人 白南洙
德川邑內 司法代書人 李容句
德川邑內 德川煙草耕作組合
德川邑內 司法代書人 朴憲烈
德川郡德川面邑南里三一 琴風植
德川邑內大同江岸 中華料理 長春館
天道敎德川郡 宗理院
德川郡德川面靑龍里 吳鶴善
德川郡豊德面 徐丙勳

◇天安◇
天安邑內 天安郡廳 職員一同
天安邑內 天安麴子組合
天安邑內 天安釀造株式會社
天安郡 并川金融組合
天安郡 葛田面事務所 職員一同
天安郡 東面事務所 職員一同
天安邑內 湖西銀行
天安邑內 京南鐵道株式會社
天安郡 修身面事務所 職員一同
天安郡 木川釀造場 主任 洪承澈
天安郡 天安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天安郡 笠場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天安郡 葛田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天安郡 東面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天安郡 修身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天安郡 笠場面事務所 職員一同
天安郡 稷山面 石澤酒造場
天安郡 [illegible] 主任 洪裕植
天安郡東面 [illegible] 主任 李範正
天安郡笠場面 朴性淳
天安郡天安面事務所 職員一同
天安郡 新釜料理 天安館

◇信川◇
信川郡廳員一同
信川水利組合 電話五五番
朝鮮運送株式會社引取店 合資會社信川運輸組 崔善浩 電話一七番
黃海道信川 西鮮電氣株式會社 信川營業所 電話一四番
國際通運株式會社代理店 信川運送倉庫株式會社 李正勉
黃海道信川邑 三星醫院 公醫 柳昌萬 電話二四番
天主敎文川 申聖雨

◇文川◇
文川郡雲林面 秀峙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咸鏡南道文川郡 [illegible] 所長 原萬化
文川郡雲林面 面長 朴駟榮
咸南文川郡 郡會議員 朴道善
文川郡 [illegible] 東昌學院 院長 金秉奇
咸鏡南道文川郡 [illegible] 商店
咸鏡南道文川郡 運送店 店主 齋藤常治
文川郡 [illegible]
文川郡 [illegible] 商店

謹賀新年

◇滿洲◇

奉天 旅館 主 李完洙

四平街 濟生醫院長 崔鳳孫 電話四一七番

四平街 特產貿易 共益公司 白昌浩

奉天西塔 白米及特產物 南滿公司 奉天支店

奉天西塔大街 雜貨商 大昌洋行

奉天宇治町三番地 國際貿易 國寶洋行 總經理 李惟善

奉天十間房十四號 株式會社 協濟公司

奉天西塔大街道路北 精米貿易委托業 大同號 電三五二八番

奉天西塔大街 雜貨布疋批發 三義洋行

奉天西大街 特產貿易及精米業 新盛商會

奉天十間房 靑海號 電三三二一番

奉天西塔 大盛堂藥房 金大主

奉天十間房 朝鮮旅館 東洋軒 電三八二一

奉天吉野町 京城旅館 電三三九一番

奉天西塔 穀物貿易委托業 精米精粟業 信益商會 電話二四六〇番

奉天小西關 委托貿易 朝昌合 長 鄭基炳 電三六四〇番

奉天小西關小十字北 海陸物產 義昌合 電八四〇番

奉天西塔大街 御散貨 大同洋行 電一五二八番

奉天西塔 米穀商 齋藤洋行

奉天工業區 精油販賣各種雜貨 東一號

奉天工業區 海陸物產白米雜貨 東隆號

奉天西塔 飮食店 劉聚殷

奉天西塔 飮食店 金致元

奉天西塔 機械商 李相玉

奉天西塔 朝鮮商店 金錫祿

奉天西塔 高麗旅館 主 兪永稷

奉天西塔 金鎭柱

奉天西塔 下宿屋業 申東儀

奉天西塔 鍮器號 金南起

奉天大石橋 朝天學校 職員一同

營口永世街二本町 東安公司 吳政勳

營口永世街二本町 和洋雜貨 一省號 主 金敬啓

營口永世街二本町 德和號 金成洙

營口永世街二本町 新成號 李令翊

營口永世街二本町 泰東號 張泰瑞

營口永世街二本町 高麗號 金官赫

營口永世街二本町 張瑾洙

營口永世街二本町 金洙哲

營口永世街二本町 李萬金

營口永世街二本町 李元淳

營口縣大石橋 金泉館 主 崔五德

營口縣大石橋 芙蓉樓 主 具性喆

南滿營口驛前北五條通 滿洲粟米精選委托貿易商 工場滿鐵營口小米三頭 廣隆洋行 主 鄭和燮 電話二八七番

南滿鐵嶺驛前北五條通 穀物貿易特產委托精米精選 共益精米所 長途電話三三番

鐵嶺南町三丁目 一號 精米部 電話二五二番

鐵嶺南町 金泉館 主 李實栢

鐵嶺 李謙求

鐵嶺 永信商店 共昌泰 鄭朴台勳

鐵嶺 □□醫院長 李日煥

鐵嶺 錦興商店 主 方思賢

鐵嶺大和町 高陞洋行 ゴム靴專賣 主 孔文勳

鐵嶺 兄弟商會 崔聖天

鐵嶺 栗歎 沃

鐵嶺普校 敎員 姜攝甲

南滿鐵嶺 精米精粟及穀物貿易委托 朝鮮精米所 電話(長)三二一五番 電略(チョ)又ハ(チ) (取引銀行)朝鮮銀行 出張代理店 奉天、四平街、長春

吉敦線蛟河 穀物貿易 東豐棧 李東根

吉敦線蛟河 雜貨商米委托賣買 金星商店

吉敦線蛟河 三成精米所 主 高桂爾

吉敦線蛟河 穀物貿易 泰興商會 主 宋在杰 申健植

吉敦線蛟河 同盛泰精米所 主 金東烈

開原富樣街 特產貿易 滿蒙貿易商會 電話(長)二六二

西豐縣梅源南大街 康洪壽 電話(長)一五番

開原驛前梅鹿大街 特產貿易 不動產委托賣買 精米精粟 朝鮮商會 電話長二九七番 支店 西豐縣南大街 電話長途一五號

開原驛前 精米、製粉、機械賣買 開安精米所 電話長五二七番 電略(カア)又ハ(キ)

開原大街 特產物貿易委托賣買 支配人 鄭□□ 電話(長)一五七番

開原驛前 特產貿易及精米精粟業 開原公司

開原驛前 綿絲布木雜貨及海陸物產 朝鮮商店

開原驛前 特產貿易 東興泰

同 春醫院

開原驛前 布木雜貨 義信商會

南滿開原 金山貯蓄組合

開原 進一精米所

開原 精米業 東亞精米所

營口永世街三本町 貿易 大榮洋行 總經理 張會建 電話二〇九番

南滿營口 朝鮮人居留民會

營口朝鮮人居留民會 民會長 成世慶

營口朝鮮人貯蓄組合 組合長 白泰源

營口朝鮮人貯蓄組合 理事 李鳥山

營口朝鮮人貯蓄組合 會計 金景昇

營口朝鮮人貯蓄組合 監事 金洙穆

營口朝鮮人青年會員一同

營口新市街北本街 金在賢

營口新市街北本街 文明書

營口新市街 李根赫

營口新市街 永樂館 主 石賀樺

營口永世街二本町 韓性寬

營口永世街二本町 李熙善

營口永世街二本町 金允荷

奉天西沙窩 金保榮

奉天西公太堡 郭尙根

奉天城西公太堡 權泰祐

奉天城西公太堡普校訓導 尹源基

奉天城西公太堡 李炳煥

奉天 東亞勸業株式會社

奉天工業區 朝鮮人親睦會一同

奉天居留民會囑托醫院 院長 申泰永

奉天西部吳家荒新興學校 敎員 安君燮 黃潤錫

奉天西部吳家荒 朝鮮人學校組合

奉天西塔大街 民生精米公司 主 康鏡實

奉天十間房 李興夏

奉天西塔大街 奉天館 主 金泳夏

奉天西塔大街 慶興號 金元洙

奉天鹿町 三有公司 尹喜炳

奉天東亞勸業株式會社 朴容益

奉天驛前 滿洲興業機械精米 大半島商會 文店 電話(長)四〇三七番

奉天西塔大街 朝陽旅館 劉鳳和

◇惠山鎭◇

咸南甲山郡雲興面大五是川市 大五是川農民 消費組合

咸南甲山郡雲興面大五是川市 車賢贊

遼寧省長白縣 同仁醫院 醫師 康箕俊

咸南惠山鎭 國境自動部

咸南惠山鎭 飮食店組合

咸南惠山鎭 國境拓林(株)會社 電話一〇四番 振替京城一八四三二番

咸南惠山鎭 北一商事(株)會社 電話四番 振替京城二六九七番

遼寧省長白縣進化街 東亞醫院長 侯炳熙

咸南惠山鎭本町通十字街 洋服修繕 趙奭鍾

甲山郡普惠面長 金秉虎

咸南惠山鎭 惠山書院 儒道會

咸南惠山鎭 惠山警察署

咸南惠山鎭 咸南道立 惠山鎭醫院

咸南惠山鎭 惠山鎭營林署

咸南惠山鎭 酒造株式會社

咸南惠山鎭 電氣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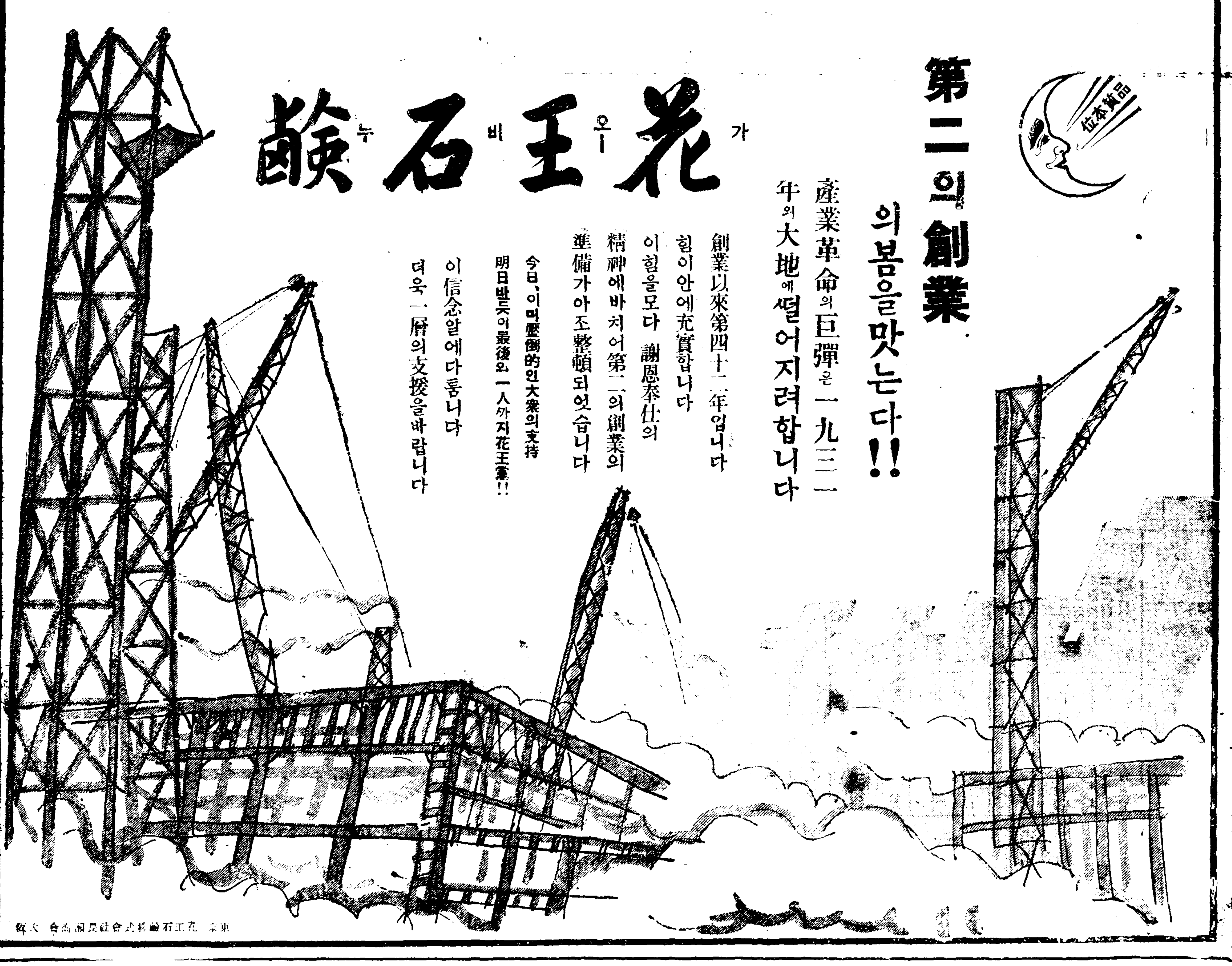
咸南惠山鎭 汲水組合

咸南惠山鎭 廣濟醫院 醫師 李鍾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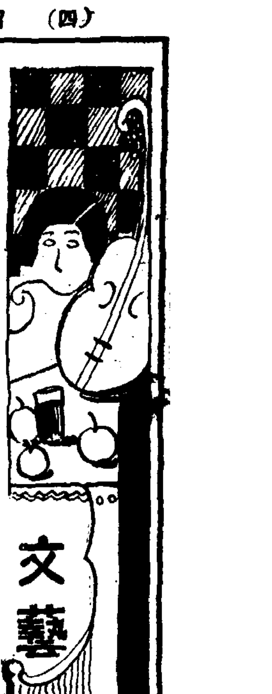
咸南惠山鎭 憲兵分隊長 諏訪與平 外職員一同

咸南惠山鎭內中生同甲 金宗稷 金慶淳 申景提 李春燮

朝鮮咸南惠山鎭本町通四丁目 共永購買組合 組合長 洪明學 同 監事



文藝



朝鮮프로레타리아 藝術運動의 昨今
特히 一九三一年을展望하면서 (四)
朴英熙

C 이點에 잇서서 푸로藝術家는 가장注意할것은 以上에 論한事件을그냥事件만으로서 補寫해서는 안되며 不充分한것이다 이곳에 잇서서는 반드시 原因과 結果를 分明히 提示하여야 하는것이다 이것을 分明히하는 試金石은 곳 政治的見解를 제울으게하지 안는데잇는것이다

資本主가 賃金을 나리고 解雇하고 其外의 온갓不幸한 事件의原因으로 資本主個人의 利益으로서만 되는것이라고 알어서는 아니된다 이것은 資本主義的生産體系에서 늘 지금의 視野에서 그原因을 認識해야하는것이다 이點에서 푸로藝術家의 藝術的作品은 비로소 全體運動의 合流할수잇는 푸로藝術自體의任務를 遂行할수잇는것이다 그리고 이곳에 한事件의 투쟁의 展開, 成功, 失敗等을 그대로 無意識的結果로서 表現해서는아니된다 이것은 어떠해서 失敗햇스며 어떠해서 成功햇다는것을 明確히 指摘하지 안흐면 아니된다

D, 이와가티 푸로藝術이 全體的事件製造에서 現實的,具體的事實에서지 藝術的活動이 成長하게됨에 必然的으로 藝術的活動은 產業別로 區分될것이다 이것은 대단히必要한것이다 各勞働의 產業的區分에달하서 藝術的活動이 잇서야한다 그러나 이것이 一九三一年에 成功할는지는 問題다 그것은 朝鮮의 各產業別勞働組合이 完全히 廣汎한 範圍에이지못하고 가장單純한 形態에잇는것과가티 이方面의 藝術的行動이 問題되기는하나 問題는成長에잇는것이고 一時的欲求에 잇는것이아니다 이것도 一九三一年에는 반드시 留意해야할 한가지의 重要한것이다

F、一九三一年의 이러한 藝術的行動과

左翼藝術家의 結成은 「칼푸」와 組織을 技術別 各個의 團體로 形成할수잇는것이다

一九三一年의 藝術運動은 文學, 演劇, 美術, 映畫, 音樂諸部分에

細密히 論議되어야 할것이다 그러나 筆者는 이곳에서 그것을 細論하게 못되엿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一九三一年에 「칼푸」의 藝術家들에게 賦與된任務일것이다 筆者는 藝術製作內容의 一般的 發展形態와 한코ー스를말한데 不過하다 이곳에서 細論치못한 「共同製作」, 「報告文學」其他는 다른論者들의 努力을기다리고 紙面關係로 이稿는 이것으로서마친다(一九三〇年十二月卅九日)

一九三〇年文壇活動과 文壇意識의淸算 (三)
金璧近

그우에우리의말하는바「文壇」은 반드시 우리의意圖하는「文學」과 原理的으로 對照될것이라고는 할수업스나 뉘날이즘의 現階的分析에서 또는階級의 여러가지 條件에서 그것을境遇에 잇어서는全然 對角的地位에 對立할수잇을것도 思想할수잇는것이다 아니 우리는 그것을 經驗하고잇다 다시말하면 한달한달 몇篇의作品의 發表與否에달하 반드시 우리의文學運動의 根幹에對하야 「一喜一悲」할 必要가업다는것이다 나는 여기서 우리는이되지안흔 文壇意識의 淸算에서 解脫할必要를 늣기는것이다 勿論 이것은 眞正한「文學」構成意識에서의 徹底에서지 批判하는것으로서 決코 어떤意味의 斷念도아니며 또는 文壇否定의立言도아니며 文壇活動과 文學活動의 分離를 到하는것도 아닐것이다 나의 말하려하는바는 現下文學運動範圍에 잇서서의 末梢的인 文壇活動에 對하 一種의過大評價(?)를警戒하고 시펏든것이며 이르는바 「文壇」과「文學」에對한 誤謬觀念의 訂正、浮游한文壇主義의 鄕愁에 잇는것이다

×

나는 이러케 見解하는限에서 우에一瞥한 三〇年의 文壇現象에對하야도 한가지特異한 解釋보다 本質的인解釋을 줄수잇는것이다 三〇年의朝鮮의所謂「文壇」으로에 본바와가티 寂寞햇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의자라는文學」은 반드시 沈滯되엇거나 退步된것이아니엇다 아니그것은 물이어前進에의 行程으로로 健步를옮것는지모른다 評論의不況은 어떤意味에서 文學進展의停頓을 意味할는지모르나 나는 차라리 이써가지의 一切의惰性的理論推理論(勿論나는 過去우리淸算末期의 文學論綱의 全部를 이러케解釋하지안는다)의揚棄는 그것뿐으로 沈默의前進으로서 理論할수잇는줄안다 批評家의沈默은 그것뿐으로 自己淸算보다 高度의理論探求의 갈잇는그것으로서 推斷할수 잇는것이다

더구나 이써가지 그처럼日本文壇의 一張一弛를 深刻히反影하든 우리의文壇이 三〇年의日本文壇의 레뷰的 人絹的文學(이것은 三〇年 日本文壇의 特色을가장適切히 表現한 川端라고생각한다 勿論 오늘 우리의一部에이알고잇는 人絹의 槪念에서—)그리고 徹頭徹尾 商業主義的 부르조아、뉘날이즘에追隨한 皮淺的文壇現象에對하야 絕對의冷靜을 保持햇다는것은(그것은 素버날여야 못될일이엇을것인지는모르나)그것뿐으로 우리의 文學生長過程에잇서의 뭇지한自己反省、自己充實로의 꾸준한努力을뵈이는 한가지 具體的反證이아니면 안될것이다

以上에서 散漫하나마「所謂文壇」「文學」의展望에對한 나의見解는 어느程度로 理解될수 잇슬것이다 所謂文壇의沈滯는 언제 收拾할수업는 우리의宿命의時期이다 그러고 그것은 조금도 우리의文學樂觀에의 情熱을 減殺시킬것이아니다

新刊紹介

▲三千里 新年號 朝鮮民族的代表의選出問題、新幹會解消批判、外來資本總觀、내가感激한作品等 京城府仁寺洞一九三 三千里社發行 振替京城四二八四番 定價三十錢

▲新生(新年號) 人類發展이란幻想인가、新即物主義寸見、詩人李杜觀論、薄命詩人채러튼、近代三大詩人論、文藝六種、科學과宗教의現代的趨向 京城西大門町一丁目七七新生社發行 振替京城三九八番

民族文學의 現階段的意義
「回顧·展望·批判」의續 (四)
梁柱東

岸曙氏의作과八峯의長篇에서는 甚히粗野하나마資本主義의一罪을把握開하려는意圖만은보인다 다만遺憾인것은그들이누구나아즉 民族부르조아지의搾取를 그릴뿐이오 一步進하야 沒落資本主義와第三期와 帝國主義의 現階段을 解剖提示코저하는力量이업는것이다 이에는 亦是社會情勢의 時間的拍車를기다려야하려니와 나는 무엇보다도 文藝作家의社會科學研究가 좀더 積極하기를 要望하야마지안는다 最近 俞鎭午氏의作風은 同作者의立場에서쓰여진것가온데에 가장明快하고 才氣橫溢한(例컨댄日本의林房雄과 做似한)作品이잇스매 前途를囑望할만하다 좋든녀 民族主義的文學과 現階段의

一無産一 階級文學의 缺陷을 아울러 그主張에對하야는 따로이 『朝鮮日報紙上新年號』에 執筆하기로 提起치안커니와 無産階級文學이 尙今 一個의 純粹勞働者作家와 農民作家를 產出치못하고 인테리(?)계시 인테리出身의 獨占으로잇는것은 甚히 부끄러운 事實이다 今後의 無產文學은 漸次로 이인테리의脫落을 보게될것이오 또한 그러되어야할것이다。

最後로 頹廢思想을 千篇一律로 愛誦하는 詩人中에 岸曙가잇다 그의作品의基調를 일우는 無常,頹廢,絶望,幻滅等의

一世紀一 末的思想은 事實이 沒落하야나가는 一部階級의 知識層一또는 現實에 막다른골목을 當하얏스나 새로운人間社會의 目標를發見치못하고 彷徨하는 푸티·부르의苦悶 그無力을 表象하는것이다 그의思想의沈滯와함께 七五調의固定化는 實로 보는者로 하야금 苦笑를 禁치못하게한다

에로文學 享樂主義文學에 對하야는 이에上述하얏다 初期民族主義 文學의發生과 및그內容에 關하야는 一切를略하고 本論으로드러 가고저한다 一또 그것의 現階段에 잇서서의 素朴性과 原始性—特히 春園의諸作에서 보는바와가튼 社會的時代性의 缺欠에 對하야는 他紙上에서 이를具體的으로 論하엿스므로 여기서는 反復의 煩을 取하지안키로한다 다만 以下의 論述의前提로서 나는다음과가튼 數項을 言明하고 나아가려한다 첫재는 近代朝鮮新文藝運動의 先驅的 役割을 가티 하엿든 春園,六堂等의 民族主義思想을 나는 原始民族主義 或은 封建的民族主義라 命名하야그

一現階一 段的 社會的 意義가 너무나 缺如하엿슴으로 非難하는 것이오 둘재는 己未年以後 社會情勢의 急激한變動으로 말미암아 한便으로 無產階級意識의 昂進과함께 在來의 民族意識이 大衆間에서 漸次로 質的昂揚을 보이게된事實이오 마즈막으로 셋재는 이 民族意識의 質的昂揚을 契機로하야 在來의民族主義 文學도 거기에相宜한 內容的進展을 相作치안코서는 아니그存立의意義의 大半이 消滅되고야말것等의事實이다

民族主義文學이 이와가티 一步前進의必然性을 띄이게된것은 말할것도업시 두가지理由가 잇다 하나는 外的으로 民族××하는 ××主義自體가 漸次 最高度의 段階로 到達하는것이오 하나는 그러하야 內的으로 民族自體內에 階級分裂이 具體化 意識化함을보게된結果 民族的意識統一이 漸次崩壞하기 시작하는事實이다 一言으로하건댄 無產階級運動의 進展과 함께 挽近數年來로 大衆의意識은 多分의 意識的으로 階級的色彩를 濃厚히가지게 되엇기 때문에 前期民族主義文學의 在來의 標語가되엇든「民族意識의 無條件的統一」도 한個

一危機一 를 直面치 아니치못한것이다 民族主義文學은 이제그時代的 社會的意義로보아 一步前進이냐? 或은 標退却?하는重大한 線上에서있슴을본다 實로 一九三〇年代의 民族文學은 必然的으로 그前期의文學으로부터 一步前進하야 客觀的 情勢와 步調를 맛초지아니치못할것이니 萬一 그러한「適應性」을發見하야 그自體의 新局面을打開치못한다하면 그야말로民族文學은「自殺」박게 他途가업슬것이다 民族文學의 새로운 機運을醸

史上의辛末 (三)
李允宰

新羅가 亡할판에들어서는 群雄이 各地에割據함에이르러 甄萱의 後百濟와 弓裔의摩震國이 分立하여 三國時代의復興을 보게 되엇다 [illegible]句麗恢復의큰 想望을 가지[illegible]일어선 弓裔의 [illegible]國 北原[illegible] 그러웟 노라 弓裔王이 [illegible]原)에 奠都하고 南征北伐[illegible]이 無敵이라 그[illegible]

三國中에 第一이되엇다 [illegible]紀元 十一年에 國號를 泰封이라 고치고 年號를 水德萬歲로 改元하엿다 新羅는 [illegible]新王 十五年 政治紊亂이 [illegible] 하다 이것이 一千二十年前 [illegible]末엇다

高麗 統一後 첫번재되는 辛未는 第四世 光宗 二十二年으로 별로 들어날만한 일이 없고 다음으로 仁憲公 姜邯贊이 八十四歲의 高齡으로 歿한 것이 九百年前, 高麗 顯宗 二十二年(西紀一〇三一年)辛未엇다 契丹이 高麗와 北進運動에 沮障이 되어 자주 邊境을 擾擾하드니 顯宗 十年에 大擧入寇하므로 公이 上元帥로 나아가 싸워 漣州(价川)·渭州(寧邊)및龜州에서 大破하야 敵軍 十萬에서 生還者 겨우 數千名을 내게하고 凱旋할 때에 王이 郊外까지 맞나가며 榮光스러운

金花八枝 를 친히 그머리 우에 꽂아주기까지한 偉勳을 세운이다

宋나라 哲宗이 우리나라에 書籍에 좋은것이 많다 함을 듣고 高麗使臣 李資義에게 書籍目錄을 보내어 달라고 懇請하므로 本國에 秘藏한 珍書 一百十六種 四千九百六十五卷의 目錄을 보낸 것이 八百四十年前, 宣宗八年(西紀一〇九一年)辛未이다 高麗의 文化가 얼마나 燦爛하엿든지 이로써 可히 想見할것이다

鄭襲明이 仁宗의 顧命으로 毅宗을 섬길새 王의 앞에 벼어나고 또 嬖佞 金存中 鄭誠等이 밤낮으로 王께 讒言하여 내쫓기게 되매 鄭明이 時勢의 그릇됨을 스스로 살피고 死藥을 마시고 自殺하엿다 瓜亭 鄭敍도역시 金存中 鄭誠等의 讒訴에 몰러어 東萊에 귀양갓드니 뒤에 王이 여러번 부르되 나아가지 아니하고 검은고를 타며 노래를 지어부르는데 歌詞가 극히 悽惋한지라 그것이

鄭瓜亭曲 으로 有名하야 後世에 오래 傳하엿다 이 鄭의 不遇가 七百五十年前 毅宗五年(西紀一一五一年)辛未엿다 三國史記의 著者 金富軾의 歿한 것이 또한 이해엇다

高麗 中葉以後로 잇더어 일어나는 內訌은 崔忠獻이 執政하므로부터 鎭息하엿으나 忠獻이 너무 威權을 專擅하야 君主는 다만 虛位뿐이요 大小政事가 다그 私家에서 나오므로 王은 全國民의 怨府가 되엇드니 王潘明等이 僧徒를 끼고忠獻의 入闕한 때를 타서 擊殺하려하매 忠獻이 慌急히 王께救命을 빌엇으나 王은 문을 닫히고 들이지 아니하엿으며 마침 그 從에게 救出함을 얻엇다 이렇게 그 計劃이 失敗에 돌아가고말매 忠獻이 王을 廢하야 江華에 옮고 康宗을 迎立하엿다 地上仙이란 이름이 잇고 文名이 높은 靖安公 祗의 歿한 것이 이때다 이것이 七百二十年前, 熙宗七年(西紀一二一一年)辛未엇다

高麗는 元宗때부터 大勢가 一變하야 蒙古에 屈服하게 되고 王室의

通婚까지 행하야 (世子곳 忠烈王이 元나라 世祖의 駙馬가 되고 이후 代代로 元나라의 駙馬노릇을함) 民族的 大恙이 되엇고 國內가 극히 擾亂하야 密城郡民의 作亂이 잇엇다가 진곡 討平되엇고 三別抄의 亂이 한창 猖獗하야 그 무리가 珍島를 웅거하엿거늘 金方慶이 蒙古軍과 聯合하야 珍島를 쳐서 大破하고 僞王 承化侯 溫을 비어죽이니 남은무리가 耽羅로 쫓겨갓다 이것이 六百六十年前 元宗十二年(西紀一二七一年)辛未엇다 蒙古가 歷史上 未曾有의 大帝國을 創建하고 國號를 元이라 고친것이 또 이해엇다

이뒤로는 王은 그의 妻家대인 元나라에 來往이 잣앗으며 나라는 紀綱이 없고 사람은 廉恥가 없어서 아주 말못할 지경이다。이때는 六百年前 忠肅王元年 辛未, 一年後에 上王(忠宣王)이 復位하고 또 八年後에 忠惠王이 다시 復位하게 되니 이도 다 元나라 來往으로 말미암음인 것이다。

海道元帥로서 海上의 倭寇를 殲滅한 百戰將軍으로 高麗의

李舜臣이 라 할만한 崔烈公 鄭地가 四十五歲의 壯年으로 光州旅舍에서 歿한 것이 五百四十年前, 恭讓王 三年(西紀一三九一年)辛未엇다。高麗의 四百七十五年의 歷史는 明年으로써 終焉을 告하게 되엇다

當選時調 朝鮮의놀애(其二)
副 螢 (住所未詳)

◇白頭山
白頭山 높이솟아 펼처놓은 三千里를
兩江이 할캐버려 滄波저리 둘럿고야
아마도 漢拏높은山이 앞막인가 하노라。

◇無窮花
無窮花 얼크러저 四時장천 봄의나라
호미가는 곧에 젖과 꿀이 샘솟거다
묻노라 樂園이어드메뇨 나는옌가 하노라

◇새옷을
새옷을 떨처입고 새時代를 맞앗으라
묵은 江山에 새 살림 차리올제
일人군이 뉘라 하더냐 네오내오 이니라

젊은그들 (一〇六)
金東仁 作 / 李象範 畫

에조(哀弔) 六

그다음부터 인화는 한 산송장으로 자처하엿다。비록 서나는 차저먹으나— 그리고 규측바르게 밤에는 자고 나제는 깨이나 세상만사를 그는 아모뜻업시 바다보앗다。

「리공。심부름시키는 것갓지만 냉수 좀 떠다 주구려」

「네」

「리공 오늘이 며츤날인지?」

「네」

그는 온갓일을「네」의 한마디로 해결코저 하엿다。거역하노라고 이러다 저러다 하는 식그러움 조차 그에게는 구찬엇다。

「여보세요。한마듸의 따뜻한 말을 사괴어도 보기전에 당신은 웨 저세상으로 갓세요?」

그는 죽은명인호를 향하야는 이러케 애원하엿다。그는 명인호의 환영이라도 보려고 눈을 바에 꼭 백여서 눈을 감고 잇섯다。

그러나 인호의 생전에도 잠시 광에서 사랑으로 사랑에서 다시 광으로 지나갈때에 본뿐 그의 모습을 자세히모르는 인화에게는 분명한 환영조차 나타나지 안엇다。커다란 그의 얼굴을 유일의 긔억으로 눈을 감고 이리저리 생각하여 보지만 그 커다란 얼굴에는 그럴듯한 눈과 코는 생겨나지 안엇다。

「리공 본관(本貫)이 어듸요」

「황해도 연안」

「음。서북놈이로군」

친구들의 이러한 농에도 그는 싱겁게 빙긋이 우스면서 그들을 피하엿다。

밤에는 초불을 책상귀에 켜노코 냉수를 떠다노코 뒤에는 인호의 명복을 신령께 빌엇다。

한번에 한번도 만나서 이야기해본적이 업는것이 그에게는 더욱 원통하엿다。더구나(사리는 오히려 나앗지만) 명인호를 보면 순식간이라도 자긔와 얼굴을 대하여 보고 자긔의 손으로 그의 결박을 풀러준 일이 잇스되 뭇앗서 그 자긔의 결박를 살려준사람이 어버이의 청하여주신 약혼자라는것을 아지도 못하고 죽어버린것이 원통하엿다。자긔는 그의 약혼자ㅣ며 자긔는 자긔의 처녀로서의 원 정렬을 가지고 한번이라도 그에게 알려고 시펏다。

동시에 이호에게 대한 그리한 애모는 죄 재영에게 대한 원한으로 변하엿다。그는 할수잇는대로 재영이를 피하엿다 할수업시 맛나는 때도 대개 얼굴을 외면하엿다。얼굴을 대한때도 간다한 목례를 하는뿐 마조 서기를 꺼려엇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가장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한것은 그는 결코 재영이를 밉게 녀길수 업는것이엇다。마음으로는 재영이를 원수로 녀기고 밉게 보려 하엿지만 진심으로 재영이를 밉게 볼수가 업섯다。재영이와 맛나면 이상히도 가슴이 떨렷다。재영이가 무슨일로 나가서 밤을 새우면 그는 밤에 멋번을 문을 방삿이 열고 재영이의 방아페 신이 노혀잇는지 업는지를 보는것이엇다。

재영이에게 대한 이러한 괴상한 마음때문에 명인호에게 대하여 미안하게 된 그는 이 마음을 죽여버리고 씹흔 그에게 사죄를 하고 하엿지만 생존한 친구(이성(異性)의)로서의 괴상한 심리연은 온전히 쓰러트릴 수 업섯다。

「리공。왜 그리 심울해허우」

재영이에게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인화는 황용할수 업는 야푼 마음때문에 대답없이 외면을하고 하는것이엇섯다。

「여보세요。저는 당신분 뵈사모합니다。당신밧게는 이세상에는 남자는 업는줄 알고 이섯습니다。사창? 사창은 한 친구에 지나지 못합니다。결코 근심하거나 의심하지 말어 주세요」

그는 업는 혼백에게 이러케 호소하고 하엿다。

謹賀新年

◇羅州◇

羅州郡榮山浦 海陸物產客主 (ロ)運送店 主 朴奉一 電話一〇八番

羅州郡羅州面松月里 崔升煥

羅州郡羅州面土界里 許永奎

羅州郡羅州面土界里 許國香

羅州郡榮山浦 榮樂館 金炳五

羅州郡榮山浦 榮山醫院 院長 崔翼鴻 電話一〇七

喪中欠禮 羅州郡邑內 朴正業

羅州郡本良面 本良水利組合 林炳周 朴成厦

羅州邑內貨物自動車業 朴興杜 電話五四

羅州郡邑內 湖南醫院 院長 金明濟 電話九八

羅州邑內 精米業 李連奉 電話六三

羅州邑內 羅州興農株式會社 社長 李白南 支配人 李奇順

羅州郡茶道面楓山里 洪丙憙

羅州 榮羅金曜會

羅州郡羅州面松月里 梁東鎬

羅州郡羅州面朴丁里 尹南鉉

羅州郡羅州面南門町 金炳斗

羅州郡錦川町 [illegible]貿易商 羅州商會 主務 金炳斗 金元淳

羅州郡榮山面[illegible]里 河東秀

羅州郡羅州面錦町 綢緞布木商 錦興商會 主 丁在英

羅州郡[illegible]面 [illegible]金融組合 理事 鄭昌連

羅州郡公山面 公山普通學校 梁吉成 趙萬吉

羅州郡廳 羅州郡羅州面 羅州郡細枝面 羅州郡旺谷面 羅州郡金川面 羅州郡公山面 羅州郡茶道面 羅州郡文平面 羅州郡多侍面 羅州郡老安面 羅州郡平洞面 羅州郡榮山面 職員一同

羅州郡茶道面楓山里 洪泰憙

羅州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羅州本町 錫器製造販賣元 李昌洙

羅州本町 羅州協同商會 電話六九

羅州郡羅州面果院町 寶泉濁酒釀造場 主 朴用錫

羅州郡邑內 金禎奎

[illegible]會長 喪中欠禮 崔明燮

沖南面 李聖薰

沖南面 李範九

長湍邑內 道評議員 徐丙軾

長湍邑內 司法代書人 捧正平

長湍邑內 朝鮮火災海上保險會社代理店 食料品 諸雜貨商 よしや商店 振替京城七一二四番

長湍驛前 日鮮雜貨 穀類薪炭 片山商店 振替京城三一七四番

汶山市 綢緞布木 內外雜貨商 現金商店 主 金思吉

高浪浦金融組合 職員一同

東[illegible]金融組合 理事 東田隆次郎

長湍驛前 朝鮮運送株式會社 長湍代行營業所

京義線長湍驛前 (通)榮原運送店

◇長湍◇

東場公立尋常小學校長 原垣三春

開豐郡中面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長湍警察署 野口課吉 沈能緒 立石明倫 青木豪 安東完一 權容奭

邑內 高浪浦 渭川 古邑 魚湍 警察官駐在所 職員一同

津南面 江上面 大南面 小南面 津西面 事務所 職員一同

長湍公立農業實修學校 津南公立普通學校 長湍公立普通學校 高浪浦公立普通學校 九化公立普通學校 渭川公立普通學校 長道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長湍郡農會 長湍郡畜產同業組合 長湍郡森林保護組合 職員一同

長湍郡酒造組合

長湍驛前郵便所 職員一同

朝鮮煙草元賣捌株式會社 長湍營業所 中村佐平

長湍驛前 漢一醫局 李敦永

東場面防組 組頭 下彩長助

高浪浦消防組 組頭 金鳳奎

長湍驛 職員一同

京城地方法院長湍出張所 永澤有喜

◇楊平◇

長湍驛前 (ㅎ)荷主運送店 店主 尹昊炳

楊平警察署 職員一同

楊平郡廳 職員一同

楊平公立普通學校 楊平公立農業實修學校 職員一同

楊平金融組合 職員一同

楊平郡萬山面所 職員一同

楊平郡邑內 司法代書人 李仁榮 同補助者 卞榮乾

楊平郵便所 所長 山中梅太郎

楊平郡邑內 森川商店

양과 가정

사람에게 이로움을다바처 가정과 인연 기퍼가는양 (다)

◇…양의젓…◇

양의젓은 다량의 수분(水分) 단백질(蛋白質) 지방(脂肪) 유당(乳糖) 회분(灰分) 소량의 색소(色素) 와사(瓦斯) 유기산(有機酸)으로 되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우유보다 소화잘되고 흡수가잘되는것이 특증입니다 성분(成分)은 …하지 지방구(脂防球)가 아주 잔픔이사람의 것과 갓습니다 속히소화되는 정도를 시험한결과 사람의젓이 二十이고 양의젓이 …이며 우유는 六十이나됩니다 다시말하면 양의젓은 사람의 젓과가티 잘소화가 되는것입니다 또우유가튼데는 결핵균(結核菌)파가튼 해로운균이 잇서서 반듯이 소독을해야먹습니다마는 양의젓은 갓짜서 신선한것이면 살균소독을 아니해도 념려업다는것 입니다 그러나 이젓은 식간(食間)에 먹는것이 조흐며 우유와가티 따뜻하게해서 천천히 흡려먹어야 속에 조흡니다 또한가지는 유당(乳糖)이나 자양당(滋養糖) 가튼것을 조금처서 마시는것이 리상적입니다

◇…양의기름…◇

양의기름의 성질은 소기름과 갓습니다 그러나 빗갈이 조금 더희며 상하기가쉽습니다 새러 대신으로휴은초(燭)나비누가튼것이되어 일반가정에 쓰이고잇습니다

가정

외국가정의생활방식과 조선에적합한본보기 (四)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리어 새해부터 새생활에!

中國 조선가정보다 식객이적다

조혼것은곳쳐유단행 副領事 謝綏麟 夫人 龐氏談

우리중국 사람들은 일반으로 그업굴표정에 나타나는것과 가티 어데지 대롯치 풍회(諷懷) 가 가득이 떠돌고 잇지안흡니다 와 탈하서 우리들은 항상 긔분이 순조(順調)롭고 유연(柔軟)하야 모든데 취미를 잘 부치고서 벌로 잔근심업시 살어나갑니다 하루종일 고역을 하는로동자라도 저녁때 집에 돌아오면 새(鳥)장을 벗삼아 가티노래도하고 뜰의 화초밧도 만저주면서 남은 시간을 질김니다 공연한 쓸데업는 걱정 이야기로만 시간을 보내어 한방의공기를 침울케 하며 또 여페어린 아이들에게 조치못한 영향을 서치게 하는것은 생각할 문제인줄 생각합니다

이와가티 원만한 긔분으로 살게됨으로 매우 화락한 가정이 일우워집니다 아즉 서지도 악습의 일부다서 주의로 제二

三四하고 부인백씨으로 대가족 생활을하는데도 잇지만 아모런 고틀하지안습니다우리곳부인들 쓰는붕대라든가 … 모조리 자랑할만한점이 … 이 최근의 신식가정은 다시말할것도업습니다 비천에업든부부 서려만의 오락감이수업시 놀엇습니다 차스집(茶館)이라는 것이 잇서서 한두푼만가지고가면 서여섯사람이 넉넉이마시고 이야기하다가 올수잇습니다 그런데 여과에는 녀자는쉽대로 가지 못하는곳으로 정해서 잇섯습니다마는지금은 부인과 산보하고 오는길에 차스집에 들려오는것이 례사가되엇습니다 그만치 가정생활에 녀자가중심이 되엇스며 또녀주인공의권위가 상당히 날개를펴고잇습니다

중국사람들의 맘이 넙우부드럽다못하야 늘어진편이 만혼듯하나 남의나라의것이라도 조흔것이겟지요 아츰때면 역(지방)에 싸하 죽먹는곳도 잇고또하루두끼만식사하는곳도 잇습니다 과자로 간단히 치릅니다남자의 어나기런 멧시간권 새벽부터의 어나서서단지아침밥순비에만몰두하게되는 조선부인네들은 얼마나 수고롭겟습니까 아모튼우리곳 녀자들은 지금한참 새생활을 동경하는동시에 자긔들의 완전한 이상상치에 열중하는가운데 잇습니다

이 최근의 신식가정은 … 조선가정 처럼 개량되엇습니다 조선가정에 비하야 좀 다른점으로 처합할듯한것은 이 최은것과 또아침밥이간단한것이겟지요

◇위선갱씨와 그의딸님

폐물리용 (2)

이리저리긴하게쓰이는 헌겁부스럭이
특히 비로도、세루、중절모에
조경애

우리가정은 살림이 압흡치못함니다 그런고로 우리 가정에 만히 쓰지못하는 흔 모자(中折帽)가 잇습니다 그러면 흔히모자를 버리지 안코 잘 세탁을해서 남자구두에 씨우는각반을 만들기도하고 어떠한때는집에서 막신을 스리스바도 만들엇습니다 그도만들게 못될때고무신에 끼는 신발창을 만든일도잇습니다

근래(近來)에는 조선가정에서 세루나비로-도를 의복감으로만히입습니다 우리집에서는 세루나비로-도를입다해저서입지못하고 폐물로버리게되면 결레가튼것을 만들지 안코다시헝겁을 만들기도하고 산보(散步)갈때나 학교에 정신가튼것을 허가지고다니기조흔주머니가튼것을 만들엇습니다 또는엄지손가락이 해진 장갑도만들어집에서 마릴할때 쓰기조케 만든 외도잇습니다 소학교 아이들의양말우에덧신을 덧버선도 만들어습니다그러고 아무때도 쓰지모할 부스럭기조각은 가우로 이주잘게잘라서 방석속을 만드럿습니다 이익도 잇고 …

우리가정은 살림이 압흡치못 입인지 폐물리용(廢物利用)에 업습니다 이리타쓴만한것이 니두더하여 이러타하여도 사(男子)들은 머리를 싹고 갓(笠)을 쓰지아니하고 새다른외어가지 쓰겟습니다。요지음 남자를 …

三等當選『(貞洞禮拜堂)』朴尙玉

當選童話

(少年少女新春文藝發表其三)

一等 집업는男妹 東京 金哲洙

二等 의좋은동무 鐵原 盧艮根

三等 소들의同情 水原 金大均

佳作
- 아름다운마음 京城 李德成
- 욕심쟁이부자 金堤 羅錫天
- 와영수 … 晋州 鄭祥奎
- 삼봉이의발고락 宣川 田昌植
- 平和

日常攝生法 【三】

◇醫專 白麟濟博士

二、外科的結核과日光療法

결핵중은 폐결핵만이 아니고 림파선결핵(淋巴腺結核)、골결핵(骨結核)관절(關節) 결핵(結核)、척주(脊柱)결핵、 피부결핵、부연환(副睾丸)결핵、 가 잇습니다 또 수술로 병부를 제하기로합니다 그러나 이 석히 봉대나『꿀썻드』가튼 법만으로는 치료긔간이 너머 길뿐 아니라 종종의 불리한 폐해가 병발될때가 만하 대부분이 완전한 치치를 엇지 못하고 마는것이 다 복막、륵막、장(腸)결핵의 부흥은 신장결핵등 소위 외과 처핵이 만히 잇습니다 무슨 병이나 흔히 그러하지만 원래 결핵중은 안정히 병이 생겨잇는 국부의 안청에 의하야 곳잘 자연치유가 되어가는 성질이 잇습니다 그럼으로 비교적 펌데에 갓가운 안정을 지킬수잇는 이 여러가지 외과적 결핵은 종래로 이 안청을 유일의 치료방침으로 하야 서서히 긔대할수잇는 자연치료를 유치케하는 방법으로 하야왓습니다 그래서 흑『기부쓰』붕대라든가『씰또이드·쿨셋드』가튼 것으로 국부의 안정을 가지게 하는 법이 금일도 성행합니다 물론 수술로써 제거할 수잇는 부분이면 외과 수술로 제거하는법은 물론 외과적 결핵의 발생이 중요한 긔능을 가진 곳에 만흔 까닭에 불구가 됨을 면치 못하고 설혹 불구슴은 감오하고 수술을 결행한자중에도 다른병에 대한 수술 성적과 달라서 완전히 제거하기가 지난한 경우가 만습니다 결국 종래의 치료법은 극히 불완전한 말하자면 다른 도리가 업스니까 할수업서 하는짓에서 지나지못하얏다 하겟습니다

傳染病患者死者表 (昭和四年末)

種別	朝鮮人	日本人	外國人	合計
患者	九、四四七	四、八八六	三五	一四、三六八
死者	一、六八三	八四〇	八	二、五三一
對患者百人死者比例	一七、八二	一七、二八	二四、四	一九、六
對人口一萬死者比例	一、〇六	一七、五二	一、〇五	一、四四

選外佳作 칠판의놀애

尹泰泳

나는요 날때붐어 새깜안얼굴 눈도코도 다업는 새깜안얼굴 학교동무 다돌아간 어둔방이면 쓸쓸한 이교실을 혼자지키고 십년전 엣날에는 집도새롭고 올망졸망 학교동무 만엇답니다 이날의 학교집은 후너저가고 달달이 빈책상이 늘어만가요 고개너머 착한동무 인영이도요 오날틀어 벤또끼고 공장간대요 월사금이 업서서 공장간대요 몸시도 그엣날이 그립습니다

어린이 조선 (3)
石堀속의金庚信

李殷相 述

김유신(金庾信)이 열일곱살 붐을흘리며 여일곱번이나 간절되든해는 신라진평왕(新羅眞平王)이 삼십팔년신미(辛未)이엇다 고구려(高句麗)나 백제(百濟)나 말갈(靺鞨)이나하는 여러이 웃나라가 신라(新羅)나라의 강토를 자주침노하엿다。

이것을본 김유신은 마음에 술프고 분함을 이기지못하야 외수를 처물리칠뜻한 굳게 품고며 저 중악(中嶽)이라는 산석굴속으로 들어가 신에게 긔도올리기를 시작하엿다。

김유신은 캄캄한 석굴속에 들어앉아 두주먹을부르쥐고 한울께 맹서하야 워컷다。

『이제 적국이 무도하게도 범같이 우리나라를 해치고 이사와 하루도 펀안한적이 업습니다。저는 한개의 어린사람으로 힘은 부족하오나 뜻인즉 이 화란을 맑히고저 하오니 하느님은 살피사사 손을 저에게 빌려시옵소서。그는 이렇게 정성을 다하야 신에게 긔도를올리며 먹지도마시지도않고 하루 이틀 사흘을 지냇다。

나흘재 되는날에는 문득 유신의 눈앞에 한늙은이가 굵은 뵈옷을입고 나타나

『여기는 독한 벌레와 무서운 즘생들이 많아 사람들이 올곳이못되는데 귀소년은 어떠케 혼자 여기를왓으며 지금무엇을하고잇는고』

하고못는다 유신은 놀란듯 반가운듯 앉앗든몸을 소소르처 일으키며

『비 괴도하는일이잇서 왓삽거니와 로인께서는 어데로서 오셧으며 존명(尊名)도 들려주실수 잇을런지오』

하고 대답하엿다。

『오냐 나는본래부터 사는곳이 없다。인연을따라 오기도하고 가기도한다。그리고 이름은 난승(難勝)이라고하노라』

이러한 로인의말을듯고 유신은 속으로『옳다。이는 사람이아니라 신인가보다』생각하고 두번세번 엎대에 절한뒤에

『저는 신라사람이온데 수나라의침노함을보고 가슴아품을 참지못하야 이곳으로 왓다가 마침로인을 뵈온것이오니 로인은 저의정성을 어엿비보시고 저게 술법을 가르처주소서』

하고 청하엿다。그러나 로인은 잠잠코 말이 없다。유신은 눈물을흘리며 여섯일곱번이나 간청하엿다

『그제야 로인도 엽흘열어 그대가 어린이 제로부터 세나라(신라、백제、고구려)를 병합할마음을 가졋으니 그또한 장한일이로다』

하고말하며 남이알지못하는 이상한술법을 가르처주며

『그대에게 이법을 가르치기는 하노라마는 그대는 삼가 망녕되이 전하지말지니 그리고 만일이 법을 옳지못한일에 쓰는날에는 돌우 그앙화를 받을터이니 부대 조심할지어다』

하고 그로인은 굴밖으로 나가버린다 유신도 곳 그 로인의뒤를 쫓아나왓으나 어데 벌서 그 로인의 그림자는 두어마 장이나 떨어진 앞산고개우으로 살아저버린다

그리고 그산고개우에는 찬란한 다섯가지빛이 눈이부시게빛나고잇을뿐이엇다 그리하여 유신도 그석굴을떠나서 집으로돌아왓다

그이듬해—이웃나라의 군세가 점점급박해짐을따라 유신은 더욱더 가슴에 피가 끓엇다 한번 칼을 휘두를생각이 불현듯 일어낫다 그리하여 두번재 칼을들고 열박산(咽薄山)이라는산 깊은골작이로들어가 향불을 피우고 하늘께 제사를 올렷다 지난해 중악 석굴속에서 하든것과 꼭같이 정성스럽고도 충의에찬 마음으로 하늘께 맹서하고 또부탁하엿다

『이제는 저의 약한힘으로도 이나라를 위하야 칼을휘둘러 원수를 바로하고 큰뜻을일우고저하오니 신령은 살피시사 하고 유신이 눈을뜬때에 어둡로부터 밝은빛이 유신에게로 드리우며 신령이 유신의들고잇는 칼우에 나린다

사흘밤을 허성(虛星)각성(角星)두별이 화려하게 빛나며 그빛이 땅우에드리웟고 또한 유신의칼은 손을 떼이지아니한데 저절로 흔들흔들 떨려 소리가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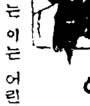
유신은 나라를위한 큰뜻을굳게품고열박산을떠나 나와다

(三國史記卷四十一、金庾信)

●訂正 어제난 이야기의 제목은金庾信과大官寺이엇는데 다른제목으로 잘못 들어갓습니다

양에관한 서양동화
어린양과 작은물고기 (三)

그 림 (獨逸)



유식만드는 이는 어린羊이사람의말을 할줄알며 몸속에이는물고기에게 이러케 가엽슨말을하는것을 듯고 몹시 놀랏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코그냥羊의새끼가 아닐것이다 이집에잇는 요술쟁이 녀자가 요술부려서 이러케 된것일것이다

이러케 생각햇습니다

그래서 유식만드는이는

『장자코 잇거라 내가결코너를 죽이지는아니할터이니』

러케말하고나서 다른 즘생을 갓다가 그것으로 유식을 만드러서 손님들에게 갓다주고 이어린羊은 어떤 마음착한농사군 마누라에게 더러고갓습니다

유식만드는이는 이농사군 마누라에게 자긔가 보고드른것을 이야기하얏습니다

그런데 이상한노릇이지요 이농사군마누라는 바로 다른사람이아니라 이어린누이의젓어머니(乳母)엇습니다그래서그는 누구인지 곳짐작하게되엇습니다

어서어린羊을더리고어떤도술(道術)이용한녀자에게로갓습니다 그녀자는 어린羊과물고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빌엇습니다 그래서 어린羊과물고기는다 처음대로사람의 몸뚱이가 되엇습니다 그러든다음에 그녀자는 이두남매를 어떤 수풀속으로 더리고가서 조고만집으로인도하얏습니다 그집에서 이두남매는 비록쓸하기는 하지만 아조넉넉하게 행복스럽게 날을보내엇습니다(끗)

謹賀新年

◇長湖院◇

長春館 主 全紅桃 藝妓 許錦桃 徐山月 任秀楊 李花中月 劉山紅

利川郡淸漢面 職員一同

陰城郡甘谷面 職員一同

雪星面職員 朴天九 職員一同

尹時榮

雪星竹南學校 職員一同

京南線長湖院驛前 藥酒 濁酒 百日酒 泰華釀造場 主 趙○慶 電話一五番 振替口座京城三三九二番

京畿道長湖院長院組合 內鮮自動車部 長院自動車部

醫師 權寧直 電話二八番

京忠衡平社支部

國際通運株式會社取引店 ㊅大成運輸組 電話二三番

東洋洋服店 主 朴英臣

利川長湖院驛前 精米 貿易 京南藥業商會 主務 李丙洙 主 徐逸殷

陰城郡甘谷面旺場里 三光釀造場

京畿道長湖院 慈來商店 李 電話一二番

京畿道利川郡長湖院市場 金鎬旭商店 電話四四番

京南線長湖院驛前 共信商會 主任 吳龍興 電話四一番

甘谷金融組合 組合長 鄭泰魚 理事 姜良浩

甘谷金融組合理事 中村光穗

長湖院金融組合理事 赤木直技

長湖院 劉東植商店 電話七番

長湖院農場 金定周 李植榮

長湖院郵便所

京畿道長湖院市 飮食店營業 張秋月

京畿道長湖院 精米商店主 李龍鎬

京畿線長湖院驛前 材木商 相和商店 電話一八番 支店 利川

李鳳雨

京南線長湖院驛前 各種農具販賣 クボタ發動機 金裕興商店 電話三六番

金融業大成社 社員一同 電話二六番

竹南公立普通學校長 森安織之助

長湖院驛前 穀物商 趙洪周 電話四〇番

京畿道長湖院 榮永模

京南線長湖院驛 長湖醫院 京專醫學士 尹基東 助手 尹基南 金仁衛 電話一七番

京南鐵道京畿線長湖院驛前 穀物 肥料 精米 業 官鹽賣捌 鐵道運送 泰華商會 電話事務所二 電話精米部一 振替京城(寸)二〇〇六九番 趙在新 朴牡熙 崔在鳴 趙國衡

◇新興◇

郡守 朴在弘

咸興炭鑛 阿部壽雄

金物商 尹泰興 電話一九番

京畿道利川郡長湖院 高允植司法代書所

京畿道長湖院市場 海陸物產果物菓子及都賣 新興商店 李鍾顯

京南線長湖院 技師 李揆鉉 主任 洪成宰

三光理髮館 林鍾九

壽光堂藥局 藥劑生 盧承元

自轉車舖 趙元周

京畿道長湖院市場 網緞布木和洋雜貨商 金英吉

金奇殷

京畿道利川長湖院 網緞布木穀物雜貨商 林明玉

共信堂藥房 李允根

利川郡長湖院 李容樂

得明商會 主 金英伯 電話一九番

中和園主 林洪山

柳寅明

金興石

丸信商會 朴遇潤

利川長湖院市 布木商 張寅浩

長湖院市場通 京南旅館

金在默

長湖院興產組合 盧秉賢 電話二五番

京畿利川長湖院驛前 靑竹商會 材木商 主任 金榮國

京南鐵道京畿線長湖院驛前 內外衣料及雜貨總代理 ゴム靴 李錦伊商店

尹殷炳

加平面所 面長 韓徵維 外 職員一同

東上面事務所 面長 崔鍾律

松興里郵便所 石丸良晴

松興市 主 田城旅館 任 成茂

永高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永高面興里 永泉釀酒所

新興釀酒所

新興邑內 小野致明

新興郡邑內 司法代書 李忠基

元平面中里 黃明璣

元平面事務所 職員一同

元平面長下里 朴泳翰

下元川面事務所 職員一同

新興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加平面豐上市 李亮鎬

松下 駐在所職員一同

新興邑內 李壯健

新興邑內 李景燮

新興金融組合 金弼奎

新興邑內 運送店 學務 韓一 主 成必浩

姓名氏

無名氏

東上面新興釀酒所 金元河

上元川面事務所 職員一同

新興郡邑內 天道敎宗理院一同

西古川面事務所 職員一同

新興郡邑內 代書人 柳秉權

新興邑內 玄昇鎭

新興郡元平學校 職員一同

新興邑內 劉道烈

新興邑內森林保護區 職員一同

新興邑內 金重玉

西古川面參中里 安鍾呂

元平面典洞農園 蔡弼模

新興邑內 朴敦燮

新興邑內 廣成自轉車店

新興邑內 文化印刷所

新興邑內大興洋服店 宋基憲

新興邑內 新月商店

新興郡廳 職員一同

新興警察署 職員一同

新興郡永高面 學校評議員 劉學豐

下元川面明太洞金山 林普圭

世界的天然公園 外金剛溫井里 御料 理切 金剛旅館 主 尹聲烈

ClibPDF - www.fastio.com

謹賀新年

◇元山◇

元山府廣石洞 書籍文具 運動用品 教科書特約 定價販賣所 文化書院 振替京城一二五四〇番 電話七四四番

元山府上洞 海產物 水產物委託 雜貨 及貿易商 大昌商店 電話八六七番

元山府上洞 海產物 委託貿易 李仁浩 金致淳 電話八〇二番

元山府上里 和洋雜貨 一興商店 電話七二三番

元山府南村洞 綢緞 布木 雜貨 李九鉉商店 電話五四五番

元山府上洞 丸大醬油專賣所 金希俊 電話四三九番

元山府銘石洞 元興商會 電話八一五番

元山府北村洞 和洋金物 大工道具 打刀物類 建築金物 金庫 高興金物店 主 金鴻彬

片倉生命保險會社 元山出張所 電話二八番

元山官署 懇話會

海星普通學校

元山府上洞 永和商會 代表 尹海炳

元山府南村洞 藥種貿易商 濟壽堂乾材局 電話五四五番 振替京城一〇三五四番 主 裴舜鎬

株式會社 元山舘 社長 盧紀萬

元山府銘石洞 合成釀酒所

元山府南村洞 [illegible] 徐相[illegible] 金貞[illegible] 電話五〇[illegible]番

元山府北村洞 十字號洋品店 電話七二三番

元山府銘石洞 金永精米所 金鏞烈

元山商業株式會社

元山府海岸埋築地 任[illegible]商店

公立學校 職員一同

元山府上洞 元山洋襪工場主 尹玆鉉

元山府上里 株式會社 興業社

元山印刷所

元山府海岸埋築地 海產物委託貿易 [illegible]商店 電話四三六番

元山府上里 李秉均

元山府南村洞 權敦銖

元山府南村洞 郵便所長

元山府北村洞 映畵常設元山舘 裵千石

元山府南 郵便所長

元山府南村洞 韓致恒 電話三六九番

元山府北村洞 金永根商店 電話五六七番

元山上里一洞 協成商會 電話一二三番

光明普通學校

元山商工會議所

元山府海岸埋築地 合資會社 金剛商會 電話八一六番

元山水曜會

元山府南村洞 高級洋靴專賣所 韓興洋靴店 主 元錫圭

元山洋服店 電話一四九番

元山土曜會

元山府廳 職員一同

元山穀物組合

元山府旭町二丁目十四番地 穀物貿易 物產委托 徐相泰商店 電話八〇七 一三九番

元山府上市場通 東省靴店

樓氏女子高等普通學校 樓氏女子普通學校

春城醫師會員一同

元山府南村洞七六番地 藥種貿易商 東海堂藥房 藥劑師 朴泰燮 電話一〇三一番 振替京城一八三二七番

元山府石隅洞 大同自動車商會 電話六六九番 主任 崔河均

元山救世病院 院長 大模理 內科主任 朴章秉 外科主任 宋鳳海 產婦人科主任 金昌鎬 眼耳鼻科主任 張明煥

◇永興◇

醸造酒、麴子製造 穀物貿易 永興釀造株式會社 電話二〇番

穀物貿易 及倉庫業 東亞貿易倉庫株式會社 電話五六番

株式會社 北鮮商業銀行 永興支店

永興郡廳職員一同

永興郡德興面 德興面職員一同

永興邑 永興產業組合

永興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永興公立農蠶實習學校

永興邑 永興警察署職員一同

穀物貿易 鄭鳳祚

金東燁

永興邑 崔三金

貿易商 金允弘 電話六二番

穀物貿易 海陸物產委托販賣 咸鳳燮

國際通運取扱店 北鮮運輸組 電話五四番

洪仁面職員一同

委托販賣貿易 張有昇

商貿易 魯鎭武 電話七番

金星醫院 醫師 金俊鎬

昭和炭礦龍田炭販賣所 栗原茂一郞 電話三三番

永興金融組合

木材販賣所主 朴重實

海陸物產委托販賣 金奉珍

永興邑 電話二番 穀物貿易 木炭販賣 朴仁根商店

三省堂藥房 金奎晃

穀物貿易 崔學吉

貿易商 文承祚

司法代書 黃命錫

◇咸陽◇

咸陽金融組合 理事 李萬俊 外職員一同

馬川面事務所 面長 金炳晧 外 職員一同

柏田公立普通學校

慶一自動車部 主 鄭殷相 取扱主 沈鍾信

咸陽面下洞 雜貨商 松下國太郞

池谷面倉坪里 面協議員 姜庸熙

席下面竹谷里 盧眞泳

柏田面事務所 面長 盧正植 外 職員一同

池谷面德谷里 鄭龍九

咸陽陸送株式會社 專務取締役 劉炳祚 支配人 梅田敬一

休川面事務所 面長 許南 外 職員一同

栢林面事務所 面長 [illegible] 會計 [illegible] 書記 [illegible]

咸陽酒造組合 理事 本吉仲藏

咸陽郡 畜產同業組合

咸陽郡柏田里 朴井圭

咸陽郡咸陽面下洞六五七 司法代書人 柳貴鎭

咸陽面上洞 李[illegible]琪

席下面事務所 面長 劉[illegible] 外職員一同

柏田里坪亭 [illegible]釀造場 主 朴文圭

池谷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甁谷面事務所 面長 河宗鏽 職員一同

池谷面事務所 面長 宋鍾文 外職員一同

咸陽公立普通學校 咸陽公立工業補習學校 職員一同

咸陽郡咸陽面下洞七七七 司法代書人 盧始泳

咸陽郡咸陽面下洞七六五 司法代書人 金尙珣

咸陽郡咸陽面下洞八〇八 司法代書人 金永得

咸陽 道評議員 盧俊泳

咸陽產業組合 理事 朴泰洪 書記 林台鏞 同 李宗彥

池谷水利組合 組合長 鄭淳賢 外職員一同

咸陽釀造場 主 盧永寅

席下面釀造場 主 鄭淳吉

咸陽郡咸陽面事務所 面長 金正完 外職員一同

朝鮮自動車咸陽營業所 主任 愼鏞佶

咸陽商會 金定權

慶南咸陽郡咸陽面上洞五〇ノ一 大昌合名會社 社長 李敏鎬

咸陽邑內 酒造、百貨店 營業主 高龜玉

咸陽自動部 權寧根

慶南咸陽郡 三一產業株式會社 振替京城一二五〇二番

咸陽市場通 王子製紙株式會社特約販賣店 [illegible]昌商會 張相基

◇晋州◇

晋州麴子製造販賣組合

晋州 郡守 宮川助介

晋州 面長 桂登利藏

晋州 道評議員 李章喜

晋州 辯護士 玄奭健

晋州 辯護士 李豐求

晋州貴谷里 鄭泰奭

晋州 姜萬秀

晋州 姜千秀

晋州 河泳珍

固城 河九鎭

晋州 崔載顥

晋州 朴奎錫

晋州 裴弼道

晋州 鄭台範

晋州實業春秋會

晋州一新女子高等普通學校 理事長 金琪邵 常務理事 姜周秀

晋州井村面中下里 姜渭秀

晋州 清水佐太郎

晋州大安洞 朝鮮料理 京城舘

晋州大安洞 朝鮮料理 晩秀亭

クラブ自動車部 電話一二五番

晋陽堂印刷所 電話一五八番

晋州 徐相弼

◇孟山◇

平南孟山郡鶴泉面 面長 白仁德

平南孟山郡鶴泉面事務所 會計員 車鎬瓚 書記 金鳳翊

孟山警察署 鶴泉警察官駐在所 加島要良

平南孟山郡封仁面 面長 玄鎭化

平南孟山郡封仁面事務所 金炳模 全淳裕 李陽渙

孟山 郡民

孟山封仁面 [illegible]醫院 朴[illegible]奎

孟山郡邑內 二光商會 蔡[illegible]錫

平南孟山郡邑內 孟城商店 李守文

孟山郡邑內 [illegible]檢查所 尹東[illegible]

孟山郡邑內 孟興自轉車舖 徐[illegible]守

平南孟山郡邑內 方基元

平南孟山郡邑內 司法代書人 田鶴壽

平南孟山郡邑內 藥種商 金允承

平南孟山郡邑內 醫生 鄭允建

孟山郡邑內 無名氏

孟山郡邑內 鐵城自轉車舖 朴明洙

平南孟山郡邑內 朝鮮料理 平壤館

平南孟山郡玉川面 面長 朴昌元

孟山警察署 鶴田面警察官駐在所 職員一同

平南孟山郡邑內 孟山修養會

孟山郡鶴泉面東倉市 東興釀造組合 金致韶

平南孟山邑內 天道教宗理院 天道教青年黨 天道教內修團 天道教四月會

孟山警察署 署長 井上正市

孟山郡無名會

平南道評議員 朴炳鉉

孟山郡守 朴鍾舜

平南孟山邑內 孟山郡農民社

平南孟山邑內 司法代書人 韓永濟

平南孟山邑內 金[illegible]濂

平南孟山警察署 刑事 金炳九

平南孟山郡邑內 司法代書人 潘宗助

平南孟山郡邑內 張雲鶴

平南孟山郡東面 面長 方峻杜

平南孟山郡元南面孔德寺 住持 金元善

平南孟山郡智德面 面長 安永達

平南孟山郡智德面事務所 會計員 崔[illegible]哲

平南孟山郡智德公普校 訓導 安鳳杜

平南孟山郡元南面 醫生 劉秉洙

孟山警察署 北倉警察官駐在所 職員一同

孟山郡玉泉面事務所 職員一同

平南孟山郡北倉市 公醫 安道順

孟山郡北倉市 幼稚園 保姆 金[illegible]恩

本年은 形便에 依하야 年賀狀은 廢止하고 紙上으로써 京鄕諸氏에게 新年을 祝賀합니다 一月元旦 東亞日報社保寧支局 尹滋白

[illegible]山面[illegible]田洞 石島藤助

利權搜查

住民의抗爭二十年 流血의慘劇까지

◇...二천 주민의사활을 지배하는문제
◇...한때는 동경중의원시 문제까지

(四) 永興灣猪島의굴漁場

衆議院 問題까지돼

주민들은 일헛든 어장을 다시 찾고저 무릇 三十여차에 미치어 총독부를 비롯하야 요로관청에 탄원 또는 진정하얏스나 아모서광도 업다가 횡산의 세위차 리권긔간만료의 이듬해인 대정九년十二월에 이르러 총독부에서는 전어구(全漁區)를 二분하야 그하나를 횡산에게 주고 남어지 一區를 지원주민에게 버여주엇스니 一개인 횡산으로서 二천여 주민에 비하야 二분의 하나를 주엇슴도 과분이려니와 횡산이가 차지한 어구는 동리와 가장접근하고 또한 소산이 만하 문전옥답에 비할자이나 주민에게 준것은 거리도 멀뿐만 아니라 소산이 횡산이가 차지한 곳보다도 못함으로 주민이 이로서 만족치못할것은 당연한사리일것이다

또다시 水產會社로

그레서 대정十二년동경중의원(東京衆議院)에까지 문제가되엇섯스나 별신통한 효과가 업시 그풍부한 리익은 전연횡산 一개인에게 넘어가서 오늘날까지 주린창자를 움켜쥐고 외로운 눈물만 쌔리고 잇섯다 그런데 최근에와서 횡산스사로가 그리권을 개발리용할야이 아니고 재작소화四년十二월四일로 그권리를 멀리 일본에잇는 애지수산공업주식회사(愛知水産工業株式會社)에 넘겨주엇스나 그어장의 권리는 소화五년 十二월말일로 긔한이 끈허짐으로 이때에 어업조합령에 딸하 주민들이 조직한 저도포개포어조합(猪島捕介捕魚組合)으로 환부하야 주는것이 당연할것이고 더욱이 인구가 날로증식되어 그 어장전부로도 생활의 보장을 할수업스니 그부근에잇는 어장을 신규(新規)로 허가하야 달라는 운동이 방금 계속진전 중인데 과연 어떤결과를 내는지 위정당국의 금후태도를 주목하지 안흘수업다

田畓도 海軍用地로

그들이 이혀던것을 다시찾고저하는것은 다못어장(漁場)뿐만아니라 거금二十五년전 즉 日露戰爭당시 영흥만(永興灣)일대가 요새지(要塞地)로 편입되엇슴에 저도의 민유경지 四十一정 一단여보와 산림四十八여정보가 또한 해군용지(海軍用地)로 무상제공되엇는데 천년전에 군용지가 해금(解禁)되는동시에 그땅은 역둔토(驛屯土)로되엇슴으로 진소위 배주고 배속빌어먹기로 자긔의땅을 빼앗긴주민들은 그를 소작(小作)하야 오는바 도민들은 이도 또한 환부하야달라는것인데 위정당국에서는 사활간두(死活竿頭)에서 허덕이는 천여생령의 사활을 지배하는 이문제를 과연 얼마한 성의로서 어떠한 해결을 나리려는지 당국의 금후태도에 주목와만하다 (完)

工事費不給으로 請負者困難

군에서 청부인에게 불급 甲山郡當局의失態

【갑산】 함남갑산군당국에서는 청혜도로공사(城惠道路工事)五、六천미돌을 갑산군진동면에 사는 홍필(洪弼)씨외 최상호(崔尙鎬)외六인에게서 막겨계약을체결하고 十월二十일에시작하야 十一월十五일에 필하고 공사비는 十一월말일에 필계(畢計)하기로하야서 전긔청부자八인은 일긔가 추어서 결빙(結氷)하는때도불구하고 주야 불식하고 일을하엿기때문에 공사는예정대로 필하얏는데 공사비총액四백九十원 중에서 四분지一이나 지출하고 지금까지 지출치안하야 팔인청부자에게 노동한인부들은 임금을 독촉하다못해지금은 十여명식 한데 뭉쳐 와서 돈밧기까지 밥이나 먹여달나하며 근일삭이나 밥을 먹이다할수업시 청부자들은 군청에와서도 하야 질문하얏스나 오는一월二十일까지 연긔하라하기로 청부자들은 그때면 이곳(邑)에와서 먹은 밥갑이나 달나 하야도 그것도 할수업다 하야 청부자로 동자들은 방금 말할수업는 곤난을 당하고 잇다한다

低利로貸附 만포저축조서

【만포】 평북만포진(平北滿浦鎭)에서는 수년전부터 조선인 유일한 지방단체로 사회에 공헌이만흔 만포저축조합(滿浦貯蓄組合)에서는 지난二十八일밤 일곱시부터 로귀서(盧龜瑞)씨집에서 제이회 정기총회를 열고 조합장 로귀서씨 사회로개회하야 일년간 업처보고가 잇슨후 특히금년은 불경긔인이만치 무리한 고리로 대부를시키는 폐단을생기게하는터임으로 저리로 저금을 대부시켜 일반시민에게편리를 주기로 결의되엇스며 신임의원을 선거한결과 씨명은다음과갓다고한다

組合長 盧龜瑞 理事 鄭子燁 金君沙 金貞勳 書記 鄭殷濟

檢查過酷으로 農民損害莫大

◇등급을 너머 나추어서 慶州米穀檢查에非難

【경주】 경주미곡검사소(慶州米穀檢査所)에서는 지난가을이후에 신미(新米)검사를 집만여석이나하엿스나그중三등이라는것이 五十석에 지나지못하고대부분이 四등미로 하여금버렷슴뿐아니라등외가약六천여석이나되어 갓득이나 저렴한 시세에서 미곡검사가 엄어나파혹하야 아가려동외가 만흔벼에는 경주미곡상들이 여간 고욕을늣길뿐아니라 검사당국에대하야 비난의 소리가 자못놉다는데 곡상들은 검사에대한 일종불안을가지는 동시에 자기들이 신곡을 사드릴때에도 대부분등외의 표준으로 매상함으로 결국손해되는것은 불상한 농촌민이라한다

道當局方針 朴福英技手談

경주미곡검사소에서 신미검사가 엄어나 파혹함에대하야 동검사소의 박기수는

사실작년신미의 검사가재작년보다다소간어렵게되엇스나그것은건조(乾燥)가불충분한탓인데재작년까지는건조에대하야별로히 주시치아니하얏스나 작년은 아시다 십히 일본에서도 미유의 풍풍이가 때문에 조선미가 해외로 나가서 오래간 저치(貯滯)하야두어서 조금도 부식(腐蝕)되지아니하게하자니 부득이 건조에 대하야 만흔주의를하게 되겟고 그외에도 조선미의품질이 좃타는 평판을 엇게 될려면 다소검사를 정밀히 하지아니하면 아니되겟는데 작년은특이도의방침도잇고 해서 거기에의지할뿐이라운운

禁酒宣傳行列

고저에서성황

【고저】 경제의탐 곡가폭락으로 말할수업는참상을 연출하는 이때임에도 불구하고 술과담배의해독은 놀랄만치 더욱심함으로 이술담배의 해독을널리선전하기위한 진고저지방 금주선전긔행렬(禁酒宣傳旗行列)은 긔보한바와가티 지난二十七일 오후一시부터 시작되엇다 정각一시를 압두고부터 四면에서모여드는 六개유년주일학교 생도를 필두로 엡웟소년회원 청년회원들은 정각전후에 四백여명을돌파하얏다 먼저고저 예배당에서 간단한식을마친후 긔행렬은시작되어 고저악대를 선두로 금주단연(禁酒斷煙)의큰긔빨아래온긔빨을 날리며 천진란만한 어린이들은 금주가를 힘잇게부르며 행진한다 써마츰장날이엿슴으로 각지에서모혀든 장꾼들은 구름가티모혀 이용감한어린이들에게 경의와감탄을 마지안핫스며 금주단연을 결심한사람도마핫다 그들이 행진하는 곳마다선전삐라는 흐터진다 행진은 시내시외를 고루거쳐 오후四시경에 十자거리에서 만세로해산하얏다 이번금주선전에 다음과가튼유지의 의연금도잇섯다

▲金一圓 洪淳玉 方炳玉 金商鎬 ▲五十錢 廣東商店 金商鎬 徐[illegible] 金贊濟 朴永植 金東[illegible] ▲金二十錢 韓仁洙

行人이轢死

조철자동차에

【신원】 지난三十一일 오후一시二十분에 해주(海州)에 본처를둔 조철자동차부(朝鐵自動車部)의 제三七호차는 운전수 박치문(朴致文)의 운전으로 해주를떠나 사리원(沙里院)으로 가든도중 재녕군장수면 대자원(大慈院)이란곳에 당도하자 마츰 서종면룡당리(西澄面龍塘里)에 사는 리승엽(李承燁)(三)씨가 그곳을지나다가별안간자동차가급히자긔의뒤에달려옴을보고 외인편으로가든것을 다시 바른편으로피하라고 확망히 자동차의아플 가로건너다가 빨리달려가든차에치어 머리와 가슴에 중상을입고 인사불성에 빠진것을 권긔운전수는 차에다싣고 다시해주로 도라가 황해도립의원(黃海道立醫院)에입원시키어 응급수술을 베플엇스나 마츰내 효과를엇지못하고 동五시경에 절명하야 버렷다한다

全州에三人強盜

지난三十일 동상에 출현 一名逮捕、一名逃走

【삼례】 지난十二월三十일오후八시경에 전주군동상면 수만리(全州郡東上面水滿里)사는송모의(宋某)집에 삼인단(三人團)강도가 침입하야 곤봉으로 주인을 협박하며 금전을 내라고하든도중 마침 이웃사람들이 알고 즉시 동상주재소(東上駐在所)로 고한바 이급보를 듯은 경관은 당지에 달려가서 범인한명은 즉시포착하고 두명은 도주하얏다는데 이보고를 접한 전주경찰서에서는 각주재소로 지휘하얏스며 포착된한명은 즉시 취조한바 전주군 룡진면룡흥리 황갑룡(全州郡龍進面龍興里黃甲龍)(三)이바 즉시본서로 압송하얏스며 피해자 송모는 다행히 이웃사람의 구원을입어 아모 손해는업섯다한다

博賭團檢擧

회양란곡에서

【회양】 회양군 란곡(淮陽郡蘭谷)지방에는 도박이 성행되어 경찰의 머리를 괴롭게한다는데 따라서 당국에서는 년말경계를 엄중히하야 오든중 지난三十一일오전九시경에 란곡면현리(蘭谷面峴里)김정덕(金貞德)김석찬(金錫贊)신기호(申基浩)외 一명은 리영로(李永魯)씨집에서 동동이라는 도박을하다가 경라하든 윤순사에게 체포되어 엄중한취조를바든후 회양서로 압송되얏다한다

商工業機關

례천서발기

【례천】 경북례천(醴泉)읍내 상공업자(商工業者)사십여명이 지난二十九일밤 남원려관에서 망년회를 개최한바 이모임은실로 근래에 처음이 대성황임으로 이를긔회삼아 례천은 제二개성(開城)이란 일홈이잇는만큼 조선인상업을 십지대를 확연하게 하기위하야는 먼저이에 적당한긔관이 필요하다하야 만장一치로긔관을조직하기루결의하고 즉석에서 압에와가티 읍내유력자중의 일곱사람을준비위원(準備委員)으로선거하고 늣게 폐회하얏다한다

▲準備委員=李源永 張基生 李壽鉉 金頭熙 尹致熙 黃永周 裵任得

月影夜學曙光

경영곤난으로 폐쇄지경에 全氏가經費를負擔

【마산】 마산부월영동(馬山府月影洞)유지 권숙경(權肅景)김회수(金會水)윤상범(尹相範)이외 제씨가 약九년전에 야학교를그동내에 설치하고 무산남녀아동의 영재를 양성하여오든바 도민들이 리해가업슴뿐아니라 비동이되여 공비二천여원을 들려 四十여평의 교실은 근근히 건축하고 매년백수십명의 남녀아동을 교육시키나 유지비까지는 부담할여력이업서 교원들이 저부 보수업시 교수를 시키나리와스나 아프로는보수업시 교수시킬 선생이 문제되는동시에 유지곤난으로 교문을 폐쇄케되엿슴으로 그 학교장 권숙경(權肅景)씨는 오래전부터 어러방면으로 유지의동정을 구하엿스나 실패를당하고 눈물을먹음고 실망중에잇던바 그 참담한 정황을 들은 당지표정(俵町)전병환(全秉煥)씨가 자진하야 매년경비 二백원이상을 부담케되여 문을 닷치게되엇든 그야학교에는새로운 서광이 빗초며 금으로 그곳 주민은 깃버함을 말지안는 동시에 전씨의열성에 칭찬을 마지안는다한다

龍山面長辭職

【구장】 긔보한바와가티 녕변군 룡산면(寧邊郡龍山面) 면민대회(面民大會)에서는 거이 지구전에 들어가 쌍방의활동이 맹렬하든바 당국 동면장 김승록(金承祿)씨는 지난十二월二十一일에 정식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얏다한다

白米한말씩 一百三十名에

평양성탄구제

【평양】 지난크리쓰마쓰를 긔회로 성탄긔념련합구제회(聖誕紀念聯合救濟會)에서는 저간동정미달등을 말아가지고 모은돈으로서 지난二일에 부내의극빈자一백三十명에게 백미한말씩을 분급하얏다한다

엡웟少年會創立 【양구】

강원도 양구군양구소년회는 二十八일 오후두시에 당지 유치원내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얏는데 선거된 신임집행위원은 좌와갓다

회장 백남준 부회장 김덕히(以下略)

農民夜學為하야 土地、建物寄贈

義州安靖淳氏厚意

【의주】 의주군 고진면 탑하동(義州郡古津面塔下洞) 안정순(安靖淳)씨는 이래당지 농민운동을 위하야 각방면으로 로력하여오든바 금번자긔 소유의 토지 약二천평의 지상권(地上權)과 二간의 건물을전탑하농민사(全塔下農民社)에서경영하는농민야학(農民夜學)에 긔부하는 동시에 동야학의 일체경비를 프로 자담하기로 되어서 씨에대한일반농민의 칭송은 일로크다한다

農民指導講習 【맹산】

평남맹산군(孟山郡)농민사에서 일반사원을 교련하기위하야 지군을 사구로난호와 지도자강습회를개최한다함은 이미 보도한바어니와 원남(元南)구역에서는 ▲二월 二十五六일간 향평리(香坪里) 김병주(金炳柱)씨의 집에서 二十여명이 회집하야 강습을 성황으로 마치엇다는데 교과목과 강사의씨명은 알에와갓다

▲科目 한글 算術 作文 常識 ▲講師 金消洙 金尙學

無智蒙昧를唾罵코 熱烈한教育運動

대개는 보수업시 교수해 各地에서農民夜學

朝雲農民夜學 【숙천】

평남 평원군 조운면(平原郡朝雲面)일대에는 학교에가지못하고잇는 무산아동이 허다하야걱정이던바 동면순정리(順井里) 정승준 김창주 김유길 김병훈 김성주(鄭承濬 金昌柱 金允吉 金炳勳 金聖柱)제씨의 발기로 금년부터 야학을 설립하고 산술 조선어주산상식등을교수하는데 성적이 점점량호하야 지금은 남녀학생이 七十여명에 달하고 그야학비용은 그곳학계에서 十원을 지판하게되여서 더욱히아프로 잘되리라한다

柳亭夜學開催 【봉명】

개천군조양면운흥리 류정(价川郡朝陽面雲興里柳亭)에서는 작년부터년년이배움에주린무산아동들에게농한긔(農閑期)를리용하야야학회(夜學會)를열어서 만흔유익을끼치든바금년도에도 일반농민주최로지난달二일부터 류정(柳亭)무산아동 二十명을 모집하야가지고필요한과목으로 두선생이 무보수로 열심교수중인데 이번에도 만흔효과를엇으리라한다

自稱保險員 村民을詐欺

【홍원】 지난九월부터 조선생명보험 주식회사(朝鮮生命保險株式會社)사원이라고하는 한인수(韓仁洙)외二인이 홍원일대를 다니면서 농민二十여명을 외어서 흑천원 혹오백원의보험금을 모집하얏다는데 자세한사

不平欄

葉書로 日頭로 本報支分局에 알닐일

問 전주(全州)수도세가 너무나 비싸서 일반에 보급되지못합니다 좀더싸게할수 업슬까요(全州一讀者)

答 사용자가 늘어가면 금후라도 더욱싸게하고자 합니다 (副面長答)

問 완산정전주천(全州川)부근 일대에는 비(雨)만오면 안심하고 살수업소 호안공사좀해주시오(一市民)

答 소화六년도부터 착수하고자하야 목하 도당국(道當局)에 보조신청하고 그실현을위하야 극력로력중이올시다 (副面長答)

뻐쓰끼리衝突 【원산】

지난二일 오후一시경에 해안매축지 김치원(金治元)상점부근에서 갑진국(甲鎭國)씨가 경영하는뻐쓰와 이로하(イロハ)뻐쓰가 충돌되어 일시는 인산인해를 이루엇다

基督少年記念式 【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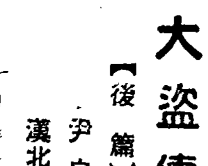
의주서부례배당(義州西部禮拜堂)안에잇는 의주긔독소년회는 지금부터四년전에 창립되어 이래우리[illegible]오든중 지난일월一일 하오七시에 당지서부례배당안에서 네돌을맛는긔념식을 거행하고 이에소년들의 가극、무도가 큰성황을하여 수백여명 관중에게 쾌감을만히주고 동一시반경에 폐회하얏다한다

地方雜信

群山 ◇女子도사람이어더 엇지自治運動을못하라 하는것은 群山妓生들의말 더욱이 無鑑札로 券番을 支持할수 잇다는것은 [illegible] ◇遂目的한 男子作員鄭某는 同權運動을 猛活動한다고 ◇何如든 妓生들이 에엿가련할 모양

大盜傳 【後篇】 (4)

尹白南 作 漢北居士 畵



운명의첫길 (一)

이 룡천구(通天溝) 나루터 —평안도 위원(渭原) 읍내에서 사십리 압록강을 건너 마즌편에잇는— 에는 일상 선객이 폭주하는곳이엇다 포구는 그리 크다할수업스나 이곳에서 압록강 하류로 나려가는 오지(奧地)의 손님들이 적지안은까닭이엇다

『자아 손님이 다 타섯거들랑 닷줄을 감어올리지 뭘허구잇서 이 우덩이가 왜 집녀석아!』

백암소주 몃잔에 얼굴이 머추빗이된 화순호(和順號)사공은 반백된 턱수염이 고슴도치털과가치 쌀막하게 내뻐친 턱을 두어번 가로 문지르면서 젊은사공에게 이러케 머룽이를벅엇다

젊은사공은 배人전에서서 우지를바라보며 입으로만 늙은사공의머룽이에대답을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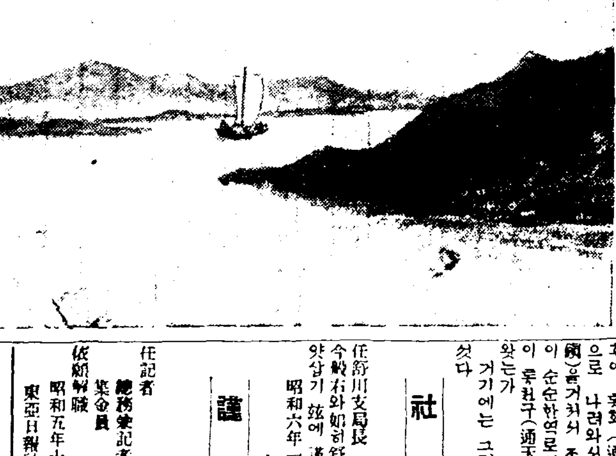
『아즉 손님이 남엇스니까 그러치오 압가 동화잔(同和棧)에 잣제가 손님을 보낸다고 허드니......웬일안』

『동화잔 에서?』

『녜』

늙은사공은 동화잔이란말을 듯고는 아모말도못하고 공방대에 가루담배를담으기시작햇다 동화잔은 이화순호 배와 인연이 기픈객주인까닭이다

화순호 가운데에는 칠팔인의 선객이 배떠나기를 기대리고잇섯다



칠구를 보퉁이에 싸서 등에 짊어진 농민이 사오인 오지에서 무역을마치고 안동방면으로 나려가는 상고가 이삼인이나되엿다

선객들은 하로아츰에 촌지에 나럼사람들도아니건마는 배에 늙은사람의만이란 여닉벼와 달라서 배가 일즉 떠나기를 고대하는마음에

『여보소 사공 어서 배를내세그려』

『녜 잠간만 참으십시오 또오를손님이 게시니까』

『이건 언제부터 잠간야 할사람이면 얼는타지 누가그러케 게 드림을부린단말이』

『젊은 녀인네람니다』

젊은녀인네란 말에 불평을짓든 선객도 입을 담으렷다 지우음 돌아다 보아야 흙아비 냄새만나는 선객중에 젊은녀이 씌는것이 반가웟던것이다

『이건 웬일야 이제엇아니오나...... 올치 저기 오나 부다 보봅시오— 어서 빨리좀 하주시오— 어서좀 빨리 와요—』

하고 젊은사공은 소리를내질렷다

여러선객은 일시에 젊은사공의 시선을딸하 눈을 옴겻다 과연 머은곳에도 어엽분 녀이 하나이 아플서고 그뒤에 짐은사나히하나가 객주장이의인개에 몸을실려듯이하고 이리로 거러오는것이 보이엇다

『내외인게로군』

『내외가 아니면 어쩌실라구엿다』

앗가부터 떠들고잇던선객의 얼굴에는 완연히 락담실망의빗이 엿다

『그속넘참 허허허』

젊은사공은 얼결대고 웃으면서 공방대를 배人전에다가 타닥려 담배를떠러버리고 이러서며

『어서 이리케 느지셧슴니까』

하며 동화잔장궤에게 아첨하는 웃음을 지어붓엇다

『밧갓량반이 좀 몸이불편하시기때문에 양음다려자시고 오시느라고 좀 느젓소그려』

『자 이리로 올라 오십시오』

젊은사공은 일행을 일반손들과는 바다던에잇는 좋속으로 안내해드렷다

『자 그러면 안녕히 나려가십시오』

『이번엔 신세를 매우지첫소』

『천만에 이다음에 돌아오실때는 또 저에게로 들려주십시오』

동화잔장궤는 손님에게작별하고 배에서나려갓다

이 한쌍 내외는 다른사람이 아니라 이화산산채를 나려온무룡(武龍)과 란영(蘭英)이엿다

무룡내외가 산채를 나려온후에 통화(通化)가로를 남으로 나려와서 만포진(滿浦鎭)을거쳐서 조선땅으로들어옴이 순순한여로이어던 어인일로 이 룡천구(通天溝)포구로 나려왓는가

거기에는 그럴듯한 리유가이엇다

社告

任舒川支局長 羅龍熙

今般右와如히舒川支局을設置하얏삽기 玆에 謹告하나이다

昭和六年一月一日 東亞日報社

謹告

任記者 總務兼記者 朴來寶 崔爾達 集金員 全 鐸 金振元 依願解職

昭和五年十二月廿九日 東亞日報社三陟支局

任記者 金弼濤

昭和六年一月一日 東亞日報社新院支局

任記者 金榮國

昭和六年一月一日 東亞日報社舒川支局

任記者 崔周彬 依願解職 金枝寶

昭和六年一月一日 東亞日報社淸亭分局

任記者 李祥根

昭和五年十二月卅日 東亞日報社大田支局

謹賀新年

◇鐵原◇

京元線鐵原 丸原商店 主 尹德昊 電話一八番 振替京城二九四一番

鐵原邑內 丸玉商店 金容玉

鐵原邑內 協成醫院 院長 李益秀 電話一三三番

鐵原邑官田里 第一冷麵屋 主 金順言 電話二二四番

富士號特約店 鐵原邑官田里 丸吳自轉車舖 主 吳龍元 電話二二七番

鐵原郵便局 遞友會

鐵原邑 貿易精米 六合商會 電話一六二番

鐵原邑內 金應煥

鐵原邑官田里 鐵原自轉車商會 主 方齊容

鐵原郡廳

鐵原邑內 鐵原印刷所 啓昌商店 主 李啓潤 電話一六六番

松本雅太郎

鐵原邑內 道評議員 李德一

鐵原邑內 鐵原消費組合 理事長 高運河 業務理事 全軫鉉 電話三九番

◇黃州◇

黃州 公醫 李東熙

黃州邑一醫院 院長 韓箕亨

黃州邑內平昌洋服店 主 金永培

黃州郡天柱面事務所 職員一同

西鮮酒類會社 黃州營業所

黃州面事務所 職員一同

黃州郡仁橋面事務所 職員一同

黃州驛前 穀物貿易精米業 永川商會 主 李東淳 電話六一番

黃州驛前 穀物貿易商 主 李昇煥

黃州邑內 吉尾商店 吉尾金次郎

黃州郡 青龍面事務所 職員一同

黃州郡果物同業組合 職員一同

黃州興業組合職員一同 常務 姜齊植

朝鮮興業株式會社 黃州支店

◇楊州◇

時計商 [illegible] 台

議政府郵便所職員一同

布木 吳錫商 李敏宇

楊州郡[illegible]事務所 職員一同

楊州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兪 錫 夏

盧光金融組合 職員一同

楊州金融組合 職員一同

楊州警察署 職員一同

楊州病院院長 李思恒

議政府 朝鮮米廠 議政府酒造合名會社 抱川酒造 永平酒造 楊州[illegible] 日本生命保險株式會社代理店 國際通運株式會社取引店 崔秉鎬

楊州郡廳職員一同 楊州郡各面職員一同

[illegible] 德 龍

兪 在 亨

徐 長 成

◇鐵山◇

鐵山郡廳 職員一同

鐵山面 職員一同

鐵山郡栢梁面 書記 鄭永鳳

鐵山郵便所 所長 鈴木瀧助

新義州地方法院鐵山出張所 野田末吉

平北元寶鐵山營業所 山口忠藏

◇瑞興◇

李漢翼

朴 泰 奎

鄭 寅 淳

瑞興面[illegible] 吳成寬

ClibPDF - www.fastio.com

世界的錢慌과 朝鮮經濟界眞相 【三】

徐椿

三、世界錢慌의原因

그러면 그範圍에 잇서서 이럿트시 廣大하고 그程度에잇서서 이럿트시 深刻한 世界的錢慌은 무엇을 原因으로 이러낫느냐

一、歐洲의產業恢復

彼世界大戰의 戰時戰後에 잇서서 米國과 日本의 空前의 大景氣를 내이고 世界的으로 物價의 暴騰을 招致하고 東南洋諸國의 輸出貿易의 盛況을 誘致하기에 至하얏든 根本原因으로 볼것은 歐洲全戰國의 約五六個年의 長時日에 亘하야의 「產業停止」에 잇섯든 것이다 大戰前의 狀態로 보면 商工業에 잇서서 全世界로 보아 指導的 地位를 가지엇든 英、獨兩國을 爲始하야 佛蘭西나 露西亞나 墺地利나 하야 有數한 諸國이 戰爭때문에 一時에 그產業의 거의 全部를 停止하다시피하고 從來 全世界에向하야 工業品을 供給하고잇든 地位로부터 一轉하야 물이어 歐洲以外의 諸國으로부터 工業品의 供給을바더야 될 地位로 떠러지게된것이 米國、日本及그他南北亞米利加 東南洋諸國의 產業의 隆盛을 招致한 根本原因이엇다。卽歐洲諸國의 經濟的 不景氣로因하야 歐洲以外의 諸國이 空前의 好景氣를 가지게 되엇든것이다。또한가지 閑過할것은 特히 戰時와 大戰直後에 잇서서의 歐洲各交戰國間의 農產物의 產額의 減少이다 交戰地帶로되어잇는 佛蘭西의北部와 露西亞의 西部等地가 約五六個年을 두고 耕作不能의 狀態에 잇섯든것은 勿論이어니와 비록 直接으로交戰地帶로 되어잇지는 안타고할지라도 交戰各國의 壯丁을 다 戰線으로 모라내인結果는 勞力의 大不足을招致하야 耕作地를 充分히 利用치못하야 農產物의 產額의 激減을結果하엿다 元來가戰時에 軍需品의 原料로서의 農業品과 또한 食料品으로서의 農產品을 戰前보다 더 만히쓰게된때로 不拘하고 全交戰各國의 農產物은 이러한理由로 激減하얏든故로 이 諸國은 歐洲以外의 諸國으로부터 農業品의 供給을 或은直接으로 或은 間接으로 戰前에 數倍나바더야될形便에잇섯다 「間接으로밧는다」는 것은 米國을거처서 밧는것을意味하는것이다 米國은 一千九百十七年(大正六年)六月外지는中立國의地位를 가지고 聯合國側과同盟國側의兩便에 다軍需品、日用雜貨、食料品等의大部分을供給하고 同年八月聯合國에 加擔하야 參戰한後에도 亦是自己의便인 聯合國側에는 繼續하야所要의商品을 供給하고 잇섯든故로 米國은 그原料로쓰기爲하야 南亞米利加 東南洋 諸國으로부터 巨額의農產物을 輸入하야此를 精製하야 歐洲諸國에 供給하고 잇섯든것이다。

그러든것이 大戰終熄後 約十年을 經過한 一千九百二十八年(昭和三年)頃에 와서는 工業과 農業을 勿論하고 歐洲諸國의產業이 거의 戰前狀態를 恢復하얏슬뿐만이 아니라 工業에잇서서는 產業合理化에 依하야 農業에잇서서는 各國政府의 獎勵와 農業技術의 長足進步에 依하야 그產額이 戰前以上으로 만허지게된것이다 그리하야 工業品에 잇서서는 勿論 戰時와大戰前後 幾個年의 處地와는反對로 歐洲以外의 諸國으로부터供給을밧는狀態로부터 轉하야 再次 大戰以前모양으로全世界를 向하야서의 工業品의主要輸出國의 地位로돌아 갓거니와 또한 歐洲以外의 諸國으로부터의 農產物의輸入도、激減해버리고 말엇는데。米國과 및日本과 不景氣의 根因으로 볼것이 이것이며、또한 東南洋諸國의 輸出貿易不振의 根本原因으로 볼것도 또한 이것이다。

二、列國의關稅戰

일즉 人類의 歷史에서는 類例를 보지못할만한 强國인 獨逸의 敗因의 最大한者가 聯合國側의 「食糧封鎖政策」이엇다 만약 獨逸로하여금 食糧及原料品의 自給自足의 地位에 잇케하얏드라면、世界大戰은、事實잇섯든 結果와는 正反對의 結果를 내엇슬는지모른다、아니、「는지 모른다」는 程度가 아니라 確實히 獨逸의 勝利로 大戰을 끗막고、이天下는 가이젤의 天下가되고、獨逸은 全世界에 對하야 完全한 支配權을 가지게 되엇슬것이다。그러나事實은이와反對로聯合國側의勝利로끗을내이고만것은獨逸을爲始하야一般同盟國側이、地理的으로封鎖當하기쉬운 處地에 잇섯는데다가 그以上의不幸으로 食糧及原料에 對해서 自給自足의地位에 處치못하엿기 때문이다。이緣故로 經驗은 獨逸을爲始하야 同盟國側이 엇든 諸國으로 하여금 自給自足主義를 取케하엿슬뿐만이아니라、이經驗은 全世界로하여금 自給自足主義下에 國內產業의 絕對保護策을 쓰게하얏다。그리하야 그 結果로 世界各國의 關稅戰을 演出하게되엇다。(此項續)

政黨政治의 世界的趨向

危機去益深刻 【三】

咸尙勳

日本 은民政政友의兩大資本家黨이 瀆政의常道라는 政治道德上으로 서로번가라 政權을 授受한다。그러기 때문에 濱口內閣가튼 反動的政策下에서라도 政友會를 憎惡하는 資本主義로부터 이것을 支持하고 그들의反動政策에 欣然하고잇다。日本의 失業者는 約三十六萬 잇다하나 正當한 調査方法에 依하면 百萬은 突破하리라 看做한다 그러나 이것을 擁護할만한 有力한 無產政黨도 업고 모든 先進國家에서 合法黨으로 存在하는 共產黨이 日本에는 死刑으로써 罰하는 治安維持法이 制定되여도 一言의反對聲을 울리지못햇다 民政黨은 議會에 絕對過半數의 議席을 갓고잇슴으로 政變의危機는 업슬것이다 그러나 民衆이 언제外지던지 이反動政策을 支持하지는 안흘것이다 昨秋來 農村失業者가 成群團隊하야 農林省에 「日數」隊의 陳情이 잇섯슴은 무엇을말하며 政府가 取要街道에 陳情隊의 入京을 防止하는 壯丁等을 配置하고 農林省에 警官保護를 둔것은 무엇을 意味하는가 바그로統一의 大望을가진 國民政府는 新關稅率을 制定하고 租界及利權을 回收하라한다 貿易上、投資上、收入이 마이너스될때 國內의失業者이 增加될가 幣原外交 卽軟弱外交란 名稱이 今後라도 持續될가 疑問 國民政府의 强硬策에 못이기어 軟弱外交를 던저버릴때 米國이 不戰條約을 방패로 그不當을 論한다고 이에 服從할 勇氣가 잇슬가 軍縮會議後 軍部及樞府의 猛烈한 反對는 이것의 不可能을 證明함이 아닐가 倫敦條約에 依하야 八億의 軍艦費減少를보앗것마는거의 全部가 航空其他에 充當되고 人民의 負擔은 少許도 輕減되지 안햇다 日本은 世界第一의 軍事費支出國이오 民政黨의 前身 憲政會 內閣는 일즉「東洋의 不和擾亂者」獨逸을 相對로 宣戰을 布告한 經驗이잇는 武勇한 政黨이다

世界 가 反動期다 反動期라 함보다 차라리 政治的 危機이다 世界의 어느 모퉁이에서 戰爭의 炬火를들어 世界를 戰爭의 구렁텅이에 몰아너흘지 모른다 그런데 이 資本主義列强에 超然하야 帝國主義戰爭을 反對하고 속으로 이 帝國主義戰爭에 對應코자 萬般準備에 專日이 업는 共產黨 獨裁의 「쏘비에트」聯邦의 動靜은 如何한가

赤露 「레닌」死後新經濟政策에 反對하는 「트로츠키」等左翼反對派의 擡頭로 一時黨의 危機를 傳하든 露國共產黨은 「스탈린」等 現幹部派의 斷乎한 處置에 依하야 그危機를 免햇스나 至今은 「트로츠키」를 逐하고 「트로츠키」의 政策을 遵奉한 經濟五個年計劃에 反對하는 「부하린」等 右翼反對派에 依하야 黨은 다시 危機에 面하얏다 昨年 第十六回 共產黨大會以來 「부하린」「리곱」等右翼反對派는 總結 罷免을 當하는바 昨今에는 全幹部가 「스탈린」을 中心한 中間派로 鞏固되엇다 五個年計劃이라 함은 工業及農業에 各各 五個年의 計劃으로 大規模의 工場을 建設하야 生產額을 米國의 그것에 達하게 한다 함이니 工業에는 大規模의 國營工場、農村에는 國營農場、集團農場의 두 種類를 둔다 이러하야 生產은 急速度로 發達하야 昨年 十六回共產黨大會에는 「五個年計劃을 四個年에」라는 標語를 물게 하얏다 農村에 個人經營이 업서지고 富農은 掃蕩되기 始作하야 階級鬪爭이 尖銳化하야간다 안으로 階級鬪爭을 强化하는 同時에 外部로는 世界的危機를 틈타서 各國의 共產黨으로하야금 直接革命에의 指令을 발케하다 指令하나니 中國서 共產黨의 武裝을 하게되고 各處의 共產黨이 擡頭함은 이때문이다 「투르키스탄」의 鐵道經營、運河開鑿의 開設等은 將來할 世界戰爭에 應하랴함이 아닐가 일즉 「쏘비에트」聯邦으로부터 世界革命의 同僚者요 世界被壓迫階級의 同類者라하야 巨大한 軍事的資金을 밧고 數多한 革命家를 쏘聯으로부터 바다들인

中華民國 의 今日은 如何한가 「쏘」聯으로하야금 말하게하라면 國民黨은 劍으로써 報하는類의 大使館搜査、中東鐵道武力奪回等 온갓 强硬策은 모다 露國을 完全한 帝國主義列强以上으로 敵對하는것으로서 土耳其의 그것보다 甚하다 그러나 國民黨의 獨裁者로서 國權恢復을 企圖하는 蔣介石으로서는 어느 侵略主義를 迎하고 어느 侵略主義를 斥할바못될것이다 이미 內亂이 平定되고 國內가 統一된 中國으로서는 第二段의 方略으로 다시 國權回收에 猛進치 안흘수 업슬것이다 이미 關稅自主權을 恢復하고 漢口、威海衛等의 租界借地를 回收한 國民黨이 殘餘의 租界 及租借地回收와 治外法權撤廢에 猛進할것은 勿論이다 일즉 治外法權撤廢를 英米佛日等諸國에 提議하얏다가 反却을 當한 國民黨政府가 이제도 그대로 自願만할가

特히 日本은 旣得權의 하나도 讓步한바 업다。그럼으로 外交의 對象이 一層더 日本에 注目될것은 判然한일이다。昨年 漢口租界回收의 交涉이 잇섯고 西原借款否認 滿鐵並行線의 敷設等은 이것을 暗示함이 아니고 무엇이랴。一九三一年의 日中關係는 多端하다 안흘수업다。

中國 國民運動에 버금하야 世界人의 注目을쓰는것은 印度의 獨立運動이다。

印度 는 三億二千萬人의 一年間 投獄者를 내면서、印度獨立運動을 이르켯다。義勇隊의 反英行動으로부터 始作한 印度反英運動은 製鹽法의 破棄로 되고 鹽倉庫의 襲擊으로 되고 最終에 어떤곳에는 暴動으로서지 化하얏다。英國勞働黨內閣은 이것에 對하야 「不法煽動取締令」、「사이몬」報告等 威脅、懷柔 온갓 方策으로 나왓스나 外貨排斥、納稅不納、學校「보이코트」、官吏排斥等 온갓 動搖는 멈출날이 업고 印度人의 生命가진者는 投獄되지 안흔者 업섯다。英國은 印度의 妥協分子를 招待하야 倫敦에 英印圓卓會議를 開催하고 微溫한 印度憲法改正案을 討議하얏스나 印度妥協分子에게조차 滿足을 줄수업섯고 그들의 歸印準備를 催促케 하얏다。그들이 歸國하는날 印度에 反英運動이 熾烈할것은 불을 보는것가티 分明하다。英國은 果然 印度에게 어느때까지 印度의 支配를 굳건히 할수가 잇슬가。

埃及 「와프드」黨의 反英運動、印度支那의 革命派의 暴動 比律賓 獨立派의 「아기날드」將軍 米國派遣 植民地의 온갓 政黨은 그獨立을 主張치 안는者업다。

帝國主義國家間의 對立、植民地、帝國主義國家間의 對立、帝國主義國家內의 階級間의 對立 「쏘비에트」聯邦對 帝國主義國家間의 對立은 世界恐慌을 通하야 날로 尖銳化한다 一九三〇年이 世界的 經濟恐慌이라 할진대 一九三一年은 世界的 政治의 危機 即 政黨政治의 危機가 아닐가 (完)

◇英陽◇

鄭輝鳳 | 權永成 | 李圭學 | 權相牧 | 共和商店 金基德 | 大興洋服店 趙薰錫 | 李鉉杜 | 趙述容 | 英陽麯子組合 | 靑杞面事務所 職員一同 | 日月面事務所 職員一同 | 日月警察官駐在所 土井龍次 李碩鳳 崔鍾皖 | 靑杞警察官駐在所 加藤健 安文秀 | 石保警察官駐在所 北畠喜平 李尙玉

首比警察官駐在所 小山粂太郞 李友泳 | 立岩警察官駐在所 植木尊義 竹內卯市 李鍾極 | 日月公立普通學校 野田常市 朴魯一 | 津田碩 | 石保公立普通學校 | 南廷卓 | 李文浩 | 李喆浩 | 廣信洋服店 李泰亨 劉州喆 | 朴鍾錫 | 唐草乾材 眞安藥局 主任 安承郁 | 立岩面事務所 職員一同 | 首比面事務所 職員一同 | 石保面事務所 職員一同 | 英陽昭和俱樂部

慶北商店 金衡學 | 靑松面上宮洞 趙基元 | 靑杞面靑杞洞 具洪植 | 吳錫文 | 立岩面蓮塘洞 鄭輝敏 | 金基亨 | 尹範五 | 趙元錫 | 金度鵬 | 趙斗鎬 | 姜昊永 | 李河一 | 權五透 | 琴昌基 | 金榮大 | 鄭泰仁 | 李顯浩 | 李秉璋 | 李元燁 | 金東瀅 | 鄭瀚模 | 具然夏 | 首比酒造組合 | 英陽司法書人會

◇淮陽◇

淮陽郡蘭谷面直浦里 加藤健治郞 | 淮陽郡蘭谷面縣里 李王職蘭谷牧場 職員一同 | 淮陽郡蘭谷面縣里 御用達共盛木物商會 李王職牧場 金源森 | 淮陽郡蘭谷面縣里 蘭谷面事務所 職員一同 | 淮陽郡蘭谷面縣里 海東醫院 公醫 李駟宰 | 淮陽郡蘭谷面縣里 綢緞布木諸雜貨商 永源興記

淮陽郡蘭谷面縣里 蘭谷郵便所長 三森軍兵 | 淮陽郡蘭谷面縣里 朝鮮燒酒製造販賣穀物貿易 蘭谷釀酒所 | 淮陽郡蘭谷面縣里 淮陽金融組合蘭谷支部 職員一同 | 淮陽郡蘭谷面縣里 蘭谷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 淮陽郡蘭谷面縣里 趙昌允 | 淮陽郡蘭谷面縣里 穀物貿易食鹽販賣 英光商店 崔[illegible]九 | 淮陽郡蘭谷面泉邑里 蘭谷水利組合 小[illegible] | 李王職蘭谷牧場 蘭谷面學校評議員 李[illegible] | 淮陽郡蘭谷面縣里 綢緞布木諸雜貨商 東[illegible]泰 | 淮陽郡蘭谷面直浦里 受知産業株式會社 蘭谷機械農場 職員一同

淮陽郡蘭谷面縣里 綢緞布木諸雜貨商 [illegible] | 淮陽郡蘭谷面縣里 蘭谷警察官駐在所 猪石傳一 | 淮陽郡蘭谷面縣里 興源商店 安亨源 | 淮陽郡蘭谷面縣里 德興商店 崔汝均 | 淮陽郡蘭谷面縣里 濟世醫院 趙河元 | 淮陽郡蘭谷面縣里 明信商店 金鎭煥 | 淮陽郡蘭谷面縣里 金剛商店 申鉉旺 | 淮陽郡蘭谷面縣里 永昌理髮館 金永浩 | 淮陽郡蘭谷面縣里 春山醫院 洪得[illegible] | 淮陽郡蘭谷面縣里 [illegible]興商店 [illegible] | 淮陽郡蘭谷面縣里 南[illegible] | 淮陽郡蘭谷面縣里 料理菓子商旅館 諸雜貨商 釘本一雄 | 淮陽郡蘭谷面縣里 東一理髮館 洪[illegible] | 淮陽郡蘭谷面縣里 土木器具理髮機械 鄭[illegible] | 淮陽郡蘭谷面縣里 綢緞布木諸雜貨商 同順永 | 淮陽郡蘭谷面縣里 綢緞布木諸雜貨商 綠成永記

◇醴泉◇

醴泉郡 官公署一同 | 慶北道評議員 李膺鉉 | 醴泉市場通 諸金物商 黃鎭彥商店 振替京城九一二番 | 慶一銀行 醴泉支店 電話二一番 | 醴泉邑內 中央醫院長 醫師 李東鉉 電話三一番 | 醴泉本町 和洋雜貨 郡放賣商 日新商店 主 嚴義燮 | 醴泉邑內 金炫鍾

醴泉邑內 安成商會 主 安成鎬 電話二四番 | 醴泉鐘子製造業 金希圭 | 醴泉邑內 京南堂時計店 | 醴泉邑內 朴雲洙 | 米穀商 李子軒 | 醴泉邑市場 貿易商 [illegible]周商店 電話四四番 | 醴泉穀物商組合 | 醴泉郡 公醫 石原堯春 | 醴泉郡 柳川面事務所 職員一同 | 甘泉釀造場 趙世永 | 醴泉郡醴門 金道植 | 酒川 崔致文 | 龍宮釀造組合 權五明 權五德 | 慶北線龍宮驛前 ㊀運送部 金在淵

慶北線龍宮驛前 片山彌一 | 龍宮驛前スタンダト代理店 三枝鉦三郞 | 慶北線龍宮驛前穀物商 尹德煥 | 龍宮驛前布木商 李景川 | 龍宮 李[illegible]芝 | 慶北線店村驛前 店村酒造組合 | 醴泉酒造株式會社 社長 張基生 專務 尹政默 電話四六 振替京城二七八番 慶北酒類品評會優等賞受領 | 醴泉邑內 醴泉藥業製造本舖 日新堂藥房 主 梁德洙 振替京城一〇六七番 | 醴泉郡 柳川釀造場 趙秉郁

北釀造所 金淑東 | 山陽共昌商會 金周[illegible] | 山陽酒造組合 高永秀 | 慶北線咸昌驛前 金鍾洛

◇牙山◇

牙山郡廳 | 京南線溫陽溫泉驛前 無名氏 | ㊅京南線溫陽溫泉驛前 大昌運送店 尹河英 | 牙山郡溫陽面左部里 忠南道評議員 李恩相 | 京南線溫陽溫泉驛前 大同旅館 主 金顯己 | 忠南溫陽溫泉 忠南勸業株式會社

◇榮州◇

長壽警察官駐在所 職員一同 | 榮州郡長壽醸造所 金[illegible] 金[illegible] | 榮州邑內 [illegible]一理髮館 主 韓仁哲 | 奉化郡乃城市 盛昌商店 | 榮州 支榮堂磨玉部 朴日成 | 榮州邑內 全河[illegible] | 榮州郡邑內 官公職員一同

海陸物產委託販賣 金[illegible] | 榮州邑內 穀物商 金明[illegible] | 榮州 草野清[illegible] | 榮州邑內 鈴木金三郞 | 榮州邑市場 榮榮館 | 榮州 榮州洋服店 | 榮州邑內 質舖 金[illegible] | 榮州邑內 姜[illegible] | 榮州邑內 榮信理髮館 | 榮州邑內 金[illegible] | 榮州邑內 黃[illegible]

ClibPDF - www.fastio.com